



민속학 분야의 대들보, 민속원

민속원은 과거와 현재의 소통을 추구합니다.

국사학, 국문학 등 기존 학문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역사과학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민속학의 탁월한 연구성과들을 담은 소중한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사업소개

학술출판 : 민속학 · 인류학 · 국악 · 향토사 등 전통문화 관련 전문학술서

자료출판 : 한국 근대민속 · 인류학자료대계
한국 근대시각문화아카이브 등 영인본 출판

지식정보 : 민속학 · 인류학 · 국악 · 향토사 등 제분야 성과를 집대성하여
학술DB로 구축





2009
10

Vol. 207 October

우리문화

'시'로 두드러지는 가을, 그곳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시

제7회 전국 창작시 공모전

공모요강

- 공모분야 : 서한시, 시조 등 포함
- 공모편수 : 3편 이내
- 접수기간 : 2009. 9. 11 ~ 10. 10
- 발표 : 2009. 10. 24(토) 한국문화재단에서 홈페이지

응모자격 및 접수처

- 자격 : 시에 관심있는 일반인(동성서민 제외)
- 접수처 : 해당 지역 문화원 / 자세한 내용은 문화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상내역

- 대 상 : 1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100만원
- 금 상 : 2편 / 한국문화재단총회장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장상 / 각 50만원
- 은 상 : 10편 / 한국문화재단협회 시도지회장상 / 각 20만원
- 동 상 : 20편 / 해당지역 문화원장상 / 각 10만원
- 특별상 : 2편 / 국제문화재단한국본부이사장상, 한국문화재단이사장상 / 각 30만원

문의처

한국문화재단협회 02_704_2311 홈페이지 www.kccf.or.kr

2009.10 우리문화

통권 207호 October



표지 | 나이없는 날 공연 중인 동해문화원의 어르신들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광호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종(광주 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심(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 02 칼럼
- 05 제 1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제 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 06 연합회 소식 나이 없는 날
- 11 문화원을 듣는다 대구북구문화원
- 14 문화원 탐방 충주문화원
- 18 특별기고 역사의 타임캡슐, 이두(吏讀)
- 22 문화광장 지역 문화콘텐츠 기획, 고객의 감성을 잡아라
- 26 문화원 이야기 김천문화원
- 30 동두천문화원
- 32 들여다 보기 우리 나눔의 문화, 두레와 품앗이 정신 아름다운 가게
- 36 연합회 소식 의령문화 · 역사마을
- 41 나의 책 수집 편력기
- 44 가고문적 산가요록
- 48 기획 한국의 예절
- 52 연합회 레이더 문화원 이모저모
- 59 우리문화 소식
- 60 원장동정

칼럼 지역문화원의 현주소를 말한다

파주문화원을 中心으로

들어가며

1960년대 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각 지방마다 지역문화원들이 출범되었다. 이후 지역문화원 설립은 꾸준히 이루어져 올 해까지 전국의 지역문화원은 모두 225개소에 이른다. 지금까지 문화원들은 지역문화의 구심체로서 지역의 전통문화 전승사업과 향토사 연구 및 보급, 지역문화제 개최 등 많은 문화 사업들을 해왔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강좌등 공공문화사업과 자치단체로부터 문화 사업을 위임받아 대행하기도 했다. 지역문화원은 지역의 뿌리이자 정신적 지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통문화를 찾고 계승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지역문화의 보급자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최근에는 향토사 연구의 범위를 넘어 시대에 걸 맞는 각종 문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문화의 메카로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문화원의 변화된 모습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이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고 시대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문화원이 풀어가야 할 현실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원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역문화원의 현주소

1. 자주재원 확보 미흡

문화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대부분의 지역문화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문화 사업을 대행하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문화원은 독자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말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문화원은 자치단체에 이끌려 다니거나 관

리 감독을 받는 등 독자적인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문화원의 경우 올 해 경상운영비 보조금으로 연간 2억 3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울곡문화제와 임진강 민속축제,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와 우수전통 민속 보존사업비로 2억4천9백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외에도 울곡, 황희선생 유적지와 문산, 금촌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운영 사업비로 6억5천9백만 원을 지원 받는 등 연간 총 11억3천8백여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예산 규모면에서 볼 때 다른 지역문화원보다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파주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파주문화원이 안고 있는 문제이자 한계라고 생각된다. 즉 시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독자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전통문화 중심의 사업 운영

그 동안 각 지역문화원들의 주요 활동 사업은 지역 향토사 연구 및 전통문화 보존 전승 사업에 치중해 왔다. 이러한 전통문화 중심의 사업 활동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옛 것을 찾고 가꾸고 보존하고 전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전통을 고집하는 일은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파주문화원의 경우 지난해 파주시지를 비롯해 파주문화재 대관, 파주 문화, 파주 인물지 등의 지역자료집과 향토사 연구지를 펴냈다. 또한 울곡문화제와 임진강 민속축제, 해넘이 축제를 개최했으며 연간 20여 회에 달하는 문화유적지 답사를 추진하였다. 또한 문화원내에 문화학교를 개설해 파주 시민을 위한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관내 유적지 2개소와 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파주문화원의 경우 타 지역문화원에 비해 비교적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시민들의 참여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아직도 문화원이 전통문화 중심의 편향적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일반 시민으로부터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교하 신도시를 비롯해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 지역주민 참여 부족

파주문화원의 경우 창립된 지 4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원 회원이 32만 명의 시민 중 4백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의식수준과 눈높이에 맞는 사업 활동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문화원이 오랜 전통을 지닌 지역문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

실이나 시대변화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력과 재정여건이 취약해 문화원 회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도 많은데 이러한 현상이 참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회원은 문화원 회원의 증대와 문화원 운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소수의 회원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문화원의 발전과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는데 열정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역문화원이 나아갈 길

1. 독자적 자주재원의 확충

문화원의 안정적 사업 활동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재나 관광지를 특화한 관광 상품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재와 관광지에 걸맞은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재원확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원 회원들의 작품집이나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향토자료집 등 문화관련 출판물을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시대인 만큼 이제 지역문화원 홈페이지를 활용한 배너광고 등을 게재하는 것도 수입원이 될 수 있다. 특히 관내 기업체나 사회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만 이 경우 문화원을 재단법인화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단법인의 경우 후원금을 내는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원의 재단법인화는 지역문화원의 독자적 추진보다는 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시도해 볼만한 일이다. 또한 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문화행사를 전국의 지역문화원과 함께 추진해서 범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문화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부에 매년 일정 비율의 예산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독립된 건물을 확보해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 볼 일이다.

2.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사업 추진

문화원의 사업은 특성상 전통적인 색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제 문화원이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이나 학생 백일장, 대중문화 강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이나 문화마을 가꾸기 운동 등도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국악이나 전통 춤은 물론 학생들에게 한자나 예절 교육을 전통방식이 아닌 흥미롭고 재미있는 교육방법을 활용해 교육시킴으로써 문화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화원 활동을 널리 알리고 정기 간행물을 활용해서 회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문화원활동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문화행사나 축제 등을 개최하여 보수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문화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3. 회원증대와 주민참여 확대

문화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중요한 일중 하나가 문화원 회원을 늘리는 일이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문화원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회원 한사람이 매년 한사람씩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는 회원 배가(倍加)운동을 펼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회원 수가 증가할 것이다.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문화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매월 또는 격월로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여 회원제로 판매하고 독자의 글도 게재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문화원 회원들의 연령층이 대개 6, 70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 세대별 연령층이 다양하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나가는 글

지역문화원은 향토사와 지역문화를 토대로 활동하는 단체이지만 오랜 역사에 걸 맞는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오랜 관행에 따라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고 독자적인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유지나 유림을 비롯한 유력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도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명실상부한 지역문화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개혁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독자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과 주민들과 함께하는 대중문화사업을 발굴해 추진하여야 한다.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재단법인으로의 새로운 출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지역유지들만이 참여하는 단체 구성원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한 역량을 문화원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와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과 정성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뒤따를 때 문화원은 비로소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홍승표 파주시 부시장



제 1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 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9월 10일부터 13일, 4일간 열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립국악원이 후원하는 제 1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제 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국립국악원 일원에서 열렸다. 제 1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민속놀이, 민요, 농악, 무용, 민속극 등 전국 광역시·도에서 참여하였으며 제 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동일한 경연내용으로 16개 광역시·도 및 이북5도에서 21개팀이 참가하여 역량을 겨뤘다.

제 1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9월 10일(목) 10시부터 국립국악원 잔디마당에서 개막식을 가졌으며 축하공연으로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외 풍물패에서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은 11일(금) 오후 3시 20분부터 동일한 곳에서 열렸다. 이어 제 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전야제 개막식이 열렸으며 12일(토) 개막식을 비롯, 13일(일)에는 대동제로 그 흥겨움을 더했다.

부대행사로 향토음식마당, 향토특산물마당, 전통공예마당, 전통놀이체험마당, 국악악기 체험마당이 열려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지난 반세기 우리의 전통 민속 문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전승하는 데 크게 기여한 유서 깊은 행사'라고 말하며 '한바탕 신명의 바람'을 불어넣는 자리가 되길 당부하며 격려했다.

연합회 소식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나는 열일곱살이에요

나이 없는 날 나이를 벗고 문화를 입자



누군들 열여덟 살이 아니었던 적이 있는가.
별빛도 수줍은 버드나무 아래로
가만히 오라던 소년 소녀들이었다.
세월을 입어 붉던 얼굴을 잊은 채
그리고 감춘 채 살아가던
우리 어른들이
열여덟의 젊음을 만나러
홍대 앞으로 모였다.





나이 없는 날 그것이 뭐시여?

수요일 아침, 개막식은 2시지만 아침부터 흥대 앞의 지방에서 올라온 어르신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새벽밥 지어먹고 긴 시간 달려와 힘들 법도 하건만 어르신들은 콧노래까지 부른다. 하늘이 푸르고 그들은 시원하다. 서울의 가을이 어르신들을 맞이한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나이 없는 날은 전국 지방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어르신문화학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총 2,000여 명의 어르신들은 2009년 한 해 동안 배우고 연마한 공연, 전시, 예술시장, 전통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흥대 일대를 가득 채웠다. 처음에는 나이 없는 날이라는 이름을 듣고 "그게 뭐시여? 다 반말하는 날이여?" 하며 웃었던 어르신들도 시작하지 얼마 안 되어 모두 금방 적응하는 모양이다. 노래방에 선점하여 들어가거나 클럽에서 몸을 흔들거나 하면서.

흥대 앞이 들썩들썩 어르신들도 들썩들썩

개막식은 개구우먼 박미선 씨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 앞서 식전 행사로 동해문화원의 동해천년학춤과 강은일&해금플러스의 공연이 펼쳐져 오기던 이의 발길을 잡았다. 이어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의 나이 없는 날 선언문 낭독으로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주현미, 4minute의 특별공연으로 축제의 흥을 돋우었다.

오늘 하루 어르신들은 흥대 앞 유명 라이브 클럽과 소극장에서 밴드 공연과 연극 공연,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거리전시, 거리공연 등을 펼치게 된다. 또한 쉽게 가볼 수 없었던 아트카페나 문화 공간 탐방과 더불어 인디밴드의 거리공연 관람, 댄스클럽에서의 나이 없는 댄스파티로 흥대 앞을 점령한다. 대낮의 흥대 앞이 한가할 법 하건만 오늘 하루는 각 지역의 어르신들이 몰려온(?) 덕분에 종일토록 들썩들썩하다.





변신에서 카페 탐방 클럽까지 오늘 하루는 노는 날!

전국 각 지역에서 자유롭게 창작, 공연 활동을 펼치던 어르신들이 한 날 한 자리에 모여 예술시장과 예술전시를 열었다. 문화원 '어르신문화 학교'를 통해 꾸준히 공예제작 활동을 해왔던 어르신들은 솟대, 갓바치(가죽공예품) 등의 제작·판매에 더불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체험도 진행하느라 거리는 북새통을 이룬다.

이런 흥대 거리를 오가다 보니 심상치 않은 차림의 어르신 언니 오빠들이 한둘이 아니다. 변신공간에서 변신을 하고 나온 것. 펑크, 공주 풍, 텍 시도, 교복 등 재미있고 다양한 의상을 젊은 세대보다 더 훌륭히 소화한 셈이다. 이런 차림으로 곳곳을 누비는 어르신들을 쫓아다니다 보니 어 느새 해가 기운다. 종일 별이 얼마나 좋았는지 어르신들도 함께 다닌 젊은이들도 얼굴이 제법 뺏다. 어스름한 기운에 하나둘씩 모여드는 장소로 가보니 흥대 앞에서 잘 나간다는 클럽이다.

어르신들의 공연이 있으면 다음 팀은 영락없는 흥대의 인디밴드다.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 이들은 서로의 음악에 손뼉을 치고 어깨동무를 하며 환호를 지른다. 이들이 평소에는 '공부해라' 잔소리 하는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고 화내는 손주 사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까. 이곳은 그야말로 하나다. 나이에 상관없이.

세대간의 문화장벽을 허무는 날로 이어지길

하루가 너무 짧다고 외치는 어르신들이다. 이들에게 오늘은 하루 노는 날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의 문화를 접하고, 또 어르신들의 문화를 전하면서 그 몽글한 감동으로 부산으로, 동해로 가면서 작은 씨앗 하나 품고 가리라. 나이 없는 날 선언문 발표를 통해 세대를 가로막는 문화, 사회 장벽을 허물고 노년층의 사회적 참여와 문화적 향유기회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이 날 뜨거운 열기는 각종 방송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9일 MBC 뉴스데스크, YTN 뉴스, KBS 뉴스광장, KBS 언제나청춘, SBS 선데이 뉴스플러스, MBC 시사매거진 2580, KBS 김동건의 한국 한국 인 등에 소식이 전해지며 그 물결이 잔잔히 퍼지고 있다.



나이 없는 날 선언문

나이로 인한 문화적 장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을 야기해 왔다. 이에 우리는 매년 9월 9일을 '나이 없는 날'로 정하여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은 물론 전 세계가 함께 동참하고 공감하는 '지구촌 나이 없는 날'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하나 되어 나이로 인한 문화적 장벽이 사라지는 진정한 어울림을 실현하는 날이 되도록 한다.

하나,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어르신들의 거리가 젊은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 되도록 한다.

하나, 세대 간 서로 교류하여 문화를 함께 즐기는 날이 되도록 하며, 또 다른 대안문화를 제안하는 날이 되도록 한다.

하나, 오늘을 계기로 '나이 없는 날'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전 세계가 참여하는 '지구촌의 나이 없는 날'이 되도록 한다.

2009년 9월 9일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최중수

나이 없는 날 '참가 프로그램

구분	지역	문화원	프로그램명
1	서울	광진	친환경-미쁜 천연비누와 화장품 만들기
2		동대문	동대문 실버 중창단-왕인니 클럽
3		마포	실버미디어 영상학교 3기 운영
4		영등포	해아 솜아라, 2009 희망의 해아 솜아라
5	부산	북구낙동	낙동강 노래를 부르는 어르신들
6		금정	덕종이 인형
7		부산강서	울어라 색소폰아
8		연제	희망의 은빛 예술단
9		기장	기장실버 은빛 천연염색반
10		부산진	꿈을 빛는 도자기세상
11		부산남구	실버 통기타 앙상블
12	대구	동구팔공	청춘(靑春)을 돌려다오
13	인천	부평	실버들의 빛 그림자 인형극 은빛어울
14	광주	서구	3대가 함께 하는 어르신 배비장
15	대전	중구	여섯줄 통기타와 은빛 하모니카 연주여행
16		유성	달려라 실버포장마차
17		대덕	연꽃마을 연축골 어르신 "소망등"으로 빛나다
18	경기	의정부	Silver Of Rock 4 악극-음악으로 인생을 말하다.
19		안양	어린이 전통문화 실버 보조강사 양성
20		평택	명장의 손으로 거름나는 '솜아라와 정승'
21		안산	아코디언으로 수놓는 은빛추억
22		과천	은빛사랑매듭
23		구리	전래놀이연구회
24		시흥	인별노밴드
25		군포	'감투봉명당싸움' 단편영화만들기
26		의왕	의왕 은빛 아코디언 연주단
27		화성	청 희 문을 만들어가는 실버 무지개극단
28		포천	추억의 실버 퓨전 예술단
29	강원	동해	지역실버가 기획하는 2009 동해천년희체합축제

구분	지역	문화원	프로그램명
30	강원	횡성	사랑을 실은 우리춤 「장수춤」 문화봉사단 양성
31		평창	평창아리리 보존·전승근로대 딱죽이 인간문화재
32		철원	철원 현무암 보존·전승
33		양양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연어 이야기
34	충북	청원	명품세상-청원 갖바치
35	충남	서산	실버 전통무용단
36		논산	전통 색한지에 담긴 실버공예가의 꿈
37		태안	태안문화원 실버 마술단
38		당진	언제나 청춘 '늘 푸른 악단'
39	전북	전주	은빛 명창들의 단가 맛들이기
40		정읍	샘골 은빛종합연예단원 양성 및 연예단 운영
41		김제	마술과 함께 신나는 인생 만들기
42		고창	우리가락 얼쑤 얼쑤!
43		부안	할머니 반진고리
44	전남	담양	우도농악 전승 및 청죽골 실버 풍물단
45		보성	우리 춤 공연단 구성
46		화순	천상의 소리 실버 오카리나 앙상블
47		영암	풍수지리 실버문화 만들기
48		함평	함평천치 예코 도예가
49	경북	영천	어르신문화학교 하모니카 반
50		예천	예천의 소리를 찾아서
51	경남	통영	통영 나전칠기 제작과정
52		사천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치원에 간 까닭
53		밀양	우리소리 우리 즐깁시다
54		함안	전통문화 지킴이 함안 농악단
55		함양	함양 할매들의 송씨방
56		거창	실버청춘연극단 양성 및 공연
57		합천	대아성 실버 농악단 양성
58	제주	서귀포	전통문화체험 집콕세상으로

나이 없는 날 - 주요언론보도 [신문 · 인터넷뉴스]

No	매체명	일자	프로그램 및 주요내용
1	해럴드경제	2009.09.02 (수)	젊은이들의 독무대 흥대거리, 어르신들이 떴다
2	아시아경제	2009.09.03 (목)	9월 9일은 '나이 없는 날'
3	시민일보	2009.09.03 (목)	젊은이-어르신 '문화 벽' 허문다
4	해럴드경제	2009.09.04 (금)	"그것 나이가 무슨 문제", 어르신들 흥대서 밴드,연극 공연
5	문화일보	2009.09.07 (월)	9일 흥대앞은 어르신 세상
6	조선일보	2009.09.07 (월)	9일 흥대앞 '나이 없는 날' 즐기자
7	강원도민일보	2009.09.08 (화)	동해 천년학춤 서울 간다 내일 '나이없는 날' 축하공연
8	경향신문	2009.09.09 (수)	흥대 앞 은빛 댄스파티... '나이 없는 날' 열정 가득
9	서울신문	2009.09.09 (수)	"인생은 아름다워라"
10	연합뉴스	2009.09.09 (수)	흥익대 앞 거처서 나이 없는 날 행사
11	CNB뉴스	2009.09.09 (수)	'나이는 숫자에 불과'
12	한국일보	2009.09.09 (수)	[원용진의 미디어 비평] 벤자민 버튼의 시간처럼...
13	KBS 인터넷 뉴스	2009.09.10 (목)	흥대에 모인 노인들 "오늘은 열아홉살"
14	YTN 인터넷 뉴스	2009.09.10 (목)	나이를 벗고 문화를 입대!
15	문화일보	2009.09.10 (목)	'우리가 원더걸스!'
16	한국일보	2009.09.10 (목)	"나는 열일곱살이에요~" 실버밴드, 흥대 클럽 압도
17	세계일보	2009.09.10 (목)	모두 젊어지자...나이없는날 행사 개최
18	해럴드경제	2009.09.10 (목)	[포토뉴스]나이 잊은 '젊은 마음'
19	매일신문	2009.09.10 (목)	가요 한국춤 켤 수 있어야 '멋쟁이 실버'
20	정책포털 Korea.kr	2009.09.10 (목)	흥대에 모인 어르신들 '나이 잊고 젊음 입던 날'
21	여성신문	2009.09.11 (금)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죠"
22	조선일보	2009.09.12 (토)	평균 66세의 늦깎이러들 '함마음밴드'
23	MBC 인터넷 뉴스	2009.09.13 (일)	황혼의 인생반전
24	MBC 인터넷 뉴스	2009.09.13 (일)	[단신]2580 예고
25	서울신문	2009.09.14 (월)	14일 TV 하이라이트 - 한국한국인 '나이없는 날-최중수'
26	정책포털 Korea.kr	2009.09.21 (월)	"이봐, 친구! 오늘은 나이 없는 날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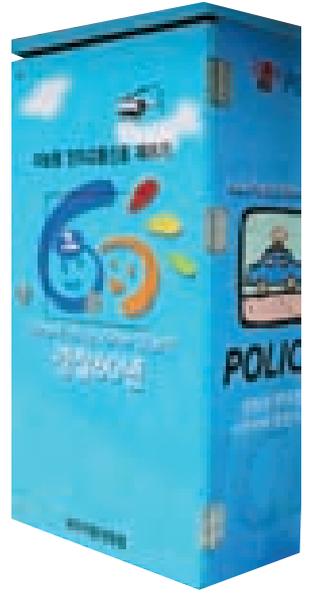
나이 없는 날 - 주요언론보도 [방송매체]

No	매체명	일자	프로그램 및 주요내용	관련정보
1	KBS 1TV	2009.08.23 (일) 오전 06:10~	〈언제나 청춘〉 우리지역 전통은 우리가 지킨다!	T V
2	KBS 1TV	2009.08.30 (일) 오전 06:10~	〈언제나 청춘〉 인생 60에 이룬 청춘의 꿈! 마포, 송파 어르신들!	T V
3	KBS 1R	2009.09.09 (수) 오후 06:10~	〈생방송 오늘〉 9월 9일은 나이없는 날! - 김미영 리포터	Radio
4	TBS	2009.09.09 (수) 오후 08:05~	〈박정숙의 오늘〉	Radio
5	MBC	2009.09.09 (수) 오후 09:00~	〈뉴스데스크〉 나이를 잊자! -흥대 앞 거리(데스크영상)	T V
6	YTN	2009.09.10 (목) 오전 05:23~	〈뉴스〉 나이를 벗고 문화를 입대!	T V
7	KBS 2TV	2009.09.10 (목) 오전 06:40~	〈뉴스광장〉 흥대에 모인 노인들 "오늘은 열아홉살"	T V
8	KBS 1TV	2009.09.13 (일) 오전 06:10~	〈언제나 청춘〉 대한민국 - 오늘은 나이 없는 날!	T V
9	MBC	2009.09.13 (일) 오후 10:45~	〈시사매거진 2580〉 노인 여가문화 생활	T V
10	SBS	2009.09.13 (일) 오전 07:20~	〈선데이 뉴스플러스〉 남정민 기자의 소비자리포트	T V
11	KBS 2TV	2009.09.14 (월) 오후 12:45~	〈김동건의 한국, 한국인〉 나이를 벗고 문화를 입자!-최중수	T V
12	KTV정책방송	2009.09.17 (목) 오후 10:30~	〈시사파일 뷰〉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찾아가는 문화버스	T V
13	KBS World	2009.09.23 (수) 오후 07:05~	〈문화속으로〉 현정탐방 및 인터뷰	Radio
14	KTV정책방송	2009.09.24 (목) 오후 06:00~	〈정보와이드 6〉 현장포커스 - 어르신문화학교	T V
15	KBS 2TV	2009.09.24 (목) 오후 07:10~	〈무한지대〉 정박 없는 문화특구! 흥대 대탐험	T V
16	TBS	방송예정	총감독 인터뷰	T V
17	아리랑방송	방송예정	행사장 전체 스케치 및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인터뷰	T V
18	TBC대구방송	방송예정	〈세상발전 유레카〉	T V

| 문화원을 듣는다 대구북구문화원 |

살기 좋은 도시!
문화하는 도시!

대구북구문화원이
문화도시를 위해 뛰다



북구문화원의 문화도시만들기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원(원장 남성희)은 설립이후 꾸준히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힘써오고 있으며, 광역시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고 유문화뿐 만 아니라 현대인에 걸 맞는 문화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여 지역의 문화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몇 해 전부터 문화도시 만들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구는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영역에 대한 배려도 없이 비문화적으로 황폐해지고 있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 '문화도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재 '문화도시' 를 단계별로 조성하기 위해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1단계로 문화산업클러스터단지 조성을 시행한 반면, 북구문화원에서는 '문화도시조성프로젝트' 사업을 민간차원에서 우선 실시한바 있다. 북구문화원에서는 인간중심의 도시를 위한 전략으로 시민들에게 생활 속의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각 도로교차로마다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제어기에 현대미술을 접목한 그림을 붙이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논과 밭은 아파트단지로 바뀌고 산을 깎아내고 뚫어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교통신호제어기나 전봇대에는 각종 스티커나 안내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흉물스럽기 짝이 없다. 사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국민 1인당 소득이 얼마라고 뉴스에서는 떠들지만 사실 국민들의 정서는 논과 밭이 없어지는 수만큼, 산이 잘려나가는 면적만큼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현실을 바꾸어 보기 위해 대구북구문화원에서는 현대인들에게 생활 속의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교통신호제어기를 조형물로 변모시키는 문화도시조성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대구 북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도시조성프로젝트-교통신호제어기채색' 사업은 교통신호제어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과 '컬러플 대구' 를 지향하는 대구시의 특성을 살리고 '오고 싶어하는 지역, 살고 싶어하는 북구' 의 슬로건에 걸 맞는 그림을 그리고, 그림위에 각종 광고안내전단지가 붙지 못하도록 불순물부착방지 투명페인트를 칠하여 흉물스러운 교통신호제어기를 아름다운 조형물로 바꾸어 놓았고, 그로인해 도시미관이 보다 아름답고 깨끗하게 변모되었다.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문화공간 만들기

예술 감상이나 체험의 필수는 문화감수성이다. 감수성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형태에서 문화감수성을 익히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민들의 생활환경과 지역사회를 문화환경으로 바꾸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도시적 삶이란 획일화되고 몰개성적이 되기 십상이므로 그런 단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창적이며 개성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어느 민족이나 전통적 삶의 근거는 지역에서 출발한다. 지역의 음식, 의복, 민속, 놀이, 언어 등의 기본 소재들을 공동체를 이루어 개발하고 특성화하면 관광자원도 되고 공동체 문화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런 현실에서 문화의 시대에 맞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극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같은 문화공간도 확충해야 하지만, 동네마다 마을마다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문화공간을 만드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 우리의 도시개발이 단순히 아파트 위주로 개발되다보니 시민들은



북구문화원에서는
이러한 문화도시만들기 프로젝트에 관한
관심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문화도시가 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시작으로
문화도시만들기 프로젝트를
장기간에 걸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생활의 편리함을 얻는 대신 아름다운 환경, 인간적인 도시를 잃어버렸다. 북구문화원이 시행한 이 사업은 그런 시민들의 생활에 보다 인간주의적이고 친숙한 도시이미지를 전달하고, 생활 속의 문화,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등의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문화도시'로 가는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도시에는 도시민의 차별화된 문화, 예술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충분하고, 그것을 확충, 운영하는 사회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동시에 문화시설을 추진할 인적, 프로그램적 자원도 풍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문화시설, 문화예술품, 문화예술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라질库里치바는 도시에 대형도서관, 박물관,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기 보다는 공장창고, 폐광 등을 개조하여 야외무대나 전시실을 만들고, '지혜의 등대:지역도서관'을 생활권 중심 곳곳에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주민의 문화생활을 향유 가능하게 하여 명성을 얻고 있다. 이것은 충분한 문화시설인프라와 도시속의 문화, 예술이 가능한 사회여건, 풍부한 인적자원과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차별화된 테마를 설정하는 것이 문화도시 육성의 첫걸음

국내에서 문화산업이나 문화예술을 수단으로 하여 지역발전이 성공한 지역이 없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과 재정을 들여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단적으로 우선순위와 특화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차원에 머무른 데 있다. 문화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테마를 설정하여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즉 해당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미래지향적

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테마를 설정하여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행정, 자원, 기획, 상품 개발, 홍보 등 각 분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해당 문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육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에 문화잠재력이 높은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문화산업클러스터, 광주문화중심도시, 문화의 거리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산업단지형, 인프라 구축형, 대량소비 지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개별화되어 있어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끌기는 미흡하다.

정책의 방향성의 전제, 문화환경

도시전체의 문화환경을 보편화시키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꾸미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환경은 도시의 문화지표에 부각되고 있으며, 삶의 질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문화환경은 정책의 방향성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아닐까.

도시는 도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문화공동체이고, 문화는 도시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필수 요소이다. 도시와 문화는 어느 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통의 성격을 지닌다. 현대는 사람들이 일을 찾아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기업들이 이전을 하거나 그곳에 회사를 차리고 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위주로 장소를 택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은 장소를 택할 때 그들이 추구하는 생활양식에 큰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이것을 볼 때 경제성장이 오직 기업들에 의해 추진되



대구북구문화원

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관대하고 다양하며 창조성을 수용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유형의 창조적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곳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다. 문화도시는 문화도시로 불리우기이전에 도시가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 환경, 교통, 녹지환경, 고용창출, 교육, 위락시설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상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이다. 사실 사는 것이 여유로울 때 문화적으로 풍부해질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 예로 미국의 어바인시티(Irvine City)는 곳곳에 자리 잡은 편의시설, 80여 곳의 공원, 낙서한줄 없는 도시미관을 가진 작은 도시로 교육과 취업기회, 범죄율, 보건, 육아, 쇼핑편의성, 라이프스타일, 정치, 경제 항목에서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은 '여성이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여성이 살기 좋다는 것은 여성을 사회약자라고 보았을 때,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 즉 모든 인간이 살기 좋은 최상의 조건을 갖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도시의 문화는 상호 유기적으로 각각의 문화요소와 연관되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문화의 바탕, 나아가 살아있는 역사로 하나의 생명체나 다름 없다.

거기에는 문화가 배어있고 한 시대의 철학과 나아가서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미래는 문화도시 조성이라고 볼 때 문화도시란 무엇이며 그 필요성에 대해 각 도시들이 공감하고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 조직 및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시민, 관 등 지역단체 등의 폭 넓은 참여와 협력 속에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도시는 문화의 속성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님을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아래 지속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 속에서 문화 즐기기, 문화원이 앞장선다

북구문화원에서는 이러한 문화도시만들기 프로젝트에 관한 관심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문화도시가 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시작으로 문화도시만들기 프로젝트를 장기간에 걸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지역민들이 정치적 관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생각하고 보다 풍성한 예술적 대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일회성 문화 관람보다 작지만 생활 속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점차 문화생활이 힘들어진 주민들이 굳이 문화공간을 찾아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문화를 항상 즐길 수 있다면 삶의 활력을 찾고 그저 삭막하기만 도시가 아니라 편안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어떤 측면에서는 문화원에서 왜 그런 일을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방문화원에서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의 문화발전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환이 바로 도시를 문화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승영 대구북구문화원 사무국장

문화원 탐방

기본을 지키는 독심 있는 문화원, 충주문화원

충북 북부의 평화로운 도시, 충주.

중앙을 남북으로 흐르는 남한강,

침식분지가 발달되어 평야가 분포된 작은 도시다.

가아금을 가지고 신리에 온 우륵이

이곳에 터를 잡고 바위에서

가아금을 타곤 했다는 그 탄금대에 위치한

충주문화원을 찾았다.

1. 충주문화원 전경
2. 목계별신제 줄다리기
3. 전찬덕 충주문화원장
4. 문화원 식구들.
좌부터 직원 임종욱, 직원 신민지, 전찬덕 원장,
김미경 간사, 김영대 사무국장
5. 해맞이
6. 고미술축제
7. 충주문화원의 보물, 대형버스.
이 버스를 이용해 전국을 다녔다





2

충주문화원

탄금대에 위치한 충주문화원

고속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탄다. “충주문화원이요.” 택시 기사는 두 말 없이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충주문화원으로 차를 몬다. 지역에 가서 문화원의 인지도를 알아보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택시에 올라타 문화원에 가자고 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경우 단박에 문화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치면 충주문화원은 인지도는 제법 있는 셈이다.

충주문화원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탄금대에 위치해 있다. 충주는 작은 곳이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꽤 된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탄금대다. 가야의 우륵이 신라에 와 자리를 잡고 가야금을 연주했다 하여 그 이름이 붙었는데 임진왜란 때 신립이 병사를 독려하며 왜구와 싸우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역사의 유구함도 그렇거니와 주변의 소나무며 넓은 잔디밭의 야외무대 등 문화원의 풍광이 운치 있어 더욱 사람의 눈길을 끈다.

“이 공간도 장단점이 있지요. 문화원 환경은 이렇게 좋지만 시내하고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막상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예로 저희는 조금 특별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 일에 하는 ‘가야금체험교실’ 이 그것인데요, 어려운 연주를 쉽게 하기 위해 따로 악보를 만들었죠. 줄의 번호를 매겨 악보화한 것이예요, 10분 정도만 배우면 아리랑 연주가 가능하죠. 이렇게 쉬운 가야금을 위해 오시는 분들에게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죠.”

문화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갖는다는 김영대 사무국장이다.

문화원과 함께 걷는 길

어느 문화원에 가나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문화원장의 고된 자리를 맡은 처음이 궁금해 전찬덕 충주문화원장에게 물었다. “문화원이요? 문화원장을 떠나서 저는 문화원 회원이 된 게 스물여덟 살인가 그래요. 이십 년 정도 지난 일이지요. 회원으로 들어와 열심히 하다 보니 이사 감사를 거쳐 부원

충주문화원

“문화원이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냥 문화원의 설립 처음의 의미를 알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문화원 정관에 나온 1장 4조의 내용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문화원의 설립 목적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 이유가 없다니깐요.”



3



4



5

장에 4년, 그렇게 원장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애착이 크죠. 저의 젊음이 이곳에 있으니깐요. 제가 서예를 20년 정도 했는데 그 시간도 거의 맞물리죠. 그냥 좋아하게 되어버린 거죠.”

전찬덕 충주문화원장은 문화원에 인연도 길뿐더러 애착도 크다.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을까.

“문화원이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냥 문화원의 설립 처음의 의미를 알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저거 유행이라고 따라가고 어찌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지방문화원 정관에 나온 1장 4조의 내용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문화원의 설립 목적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 이유가 없다니깐요.”

문화원의 중심은 이미 정관에 나와 있듯 그것에 충실하면 잘되는 거라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전 원장이다. 그 기본에만 충실한 충주문화원은 한 달에 하는 행사만도 서너 개가 넘는다.

1월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충주시민 해맞이 행사부터 시작하여 문화가족 문화유적지 답사, 팔천고혼 위령제, 제8회 청소년 향토문화유적 순례대행진 등 손으로 꼽기도 벅차다. 더욱이 가을에는 많은 축제가 있는데 목계 별신제와 대한민국 고미술축제, 중앙탑 탐돌이 등이다.

이번에는 신종 플루의 영향으로 보류된 상황이지만 이 행사들을 한 번에 몰아서 충주의 모든 것을 보여줄 기회가 있으리라 다짐하는 전 원장이다.



6

충주에서 문화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문화원

충주에서 문화원이 유명한 건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이 한 몫 해내었다. 충주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가꾸는 일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사랑과 일자리 창출, 문화원에 대한 호감도까지 한 번에 잡은 셈이다. “모시는 건 한 분의 어르신이지만 그 분들 가족들, 이웃들, 그렇게 문화원 이름이 알려지더라구요. 저희로서도 아주 뿌듯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지요. 우리가 유명해져서 좋은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문화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한 충주문화원은 목계문화역사마을의 준공이 거의 끝나가면서 지역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문화원이 앞장서서 충주를 문화도시로 이끌어 나가며 중원문화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공간이 되기를, 또한 전통문화를 보급 계승하며 주민들과 함께 문화하기를 꿈꾸는 전 원장, 그리고 충주문화원이다. 그들의 소망대로 기본에 충실한 문화지킴이, 문화나눔이로써 더욱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7

{역사의 타임캡슐, 이두(吏讀)}

“갓난아기를 신라시대말로 뭐라고 했을까?”
 “신라시대말로요? 참나, 신라시대 말을 어떻게 알아요.”
 “잘 생각해봐. 너도 아는 말이야.”
 “내가요? 이상하다, 난 신라시대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럼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를 뭐라고 하지?”
 “그거야 얼라죠.”
 “그게 바로 신라시대 갓난아기를 칭하던 말이야.”
 “네에?”

그렇다. 갓난아기의 신라시대 말은 ‘얼라’다. 이 말은 ‘조선환어승람’¹⁾의 ‘조선방언’ 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乙那 新羅時稱嬰兒曰乙那’

을아 신라때 영아를 일컬어 ‘을나’라고 했다.

조선환어승람에 등장하는 문제의 ‘을나(乙那)’는 지금 현재 경상도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얼라’와 거의 같다. 음운적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 표기에서는 ‘乙那’와 ‘얼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분	표기	소리	뜻
한자	乙那	을나	새 어찌하랴
한글	얼나	얼나	갓난애기

만약 신라시대에 순 우리말 ‘갓난아기’를 기록한 ‘乙那’를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한학(漢學)을 하던 사람이 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한자의 자체의 뜻에 의지해 해석하려고 했을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된다면 ‘乙那’의 표현은 유감스럽게도 ‘새(鳥)와 연관지어 풀이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순 우리말은 전혀 엉뚱한 문장으로

풀이되어, 단어가 자체가 지닌 뜻은 완전히 왜곡되고 마는 것이다.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吏讀

역사서에 기록된 이두는 역사학의 블루오션이나 다름없다.
아직도 깨쳐지지 않은 이두들이 역사서 곳곳에 숨어 있으며,
우리가 쓰고 있는 말한마디, 사투리하나, 집안의 족보 곳곳에 숨어 있다.

위의 신라시대 '갓난아기' 라는 말을 문자가 없던 당시 중국의 한자를 빌어 '乙那' 로 표기한 것이 바로 이두(吏讀)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두는 삼국시대 문자가 없어 우리의 말을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이용하여 기록하던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차자(借字) 표기법인 셈이다. 하지만 이두는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사라지다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역사서와 신라시대 금석문에서 일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기는 하다. 그 중에서 특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전리에 남아 있는 각석에는 당시 신라시대에 기록한 이두문이 다수 남아 있어서 고대 국어는 물론, 당시 시대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쓰인다. 이두는 비록 그 표기는 한자의 음과 훈을 취하고 있으나, 그 원리적 운용은 훈민정음과 같이 소리글자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두는 대부분 우리말 어순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아래는 MBC인기 드라마 선덕여왕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김무력(金武力)²⁾ 장군에 대한 속중병인보에 기록된 이야기이다.

甲戌濟王聖 自將十萬來圍三城 良州公南攻大元帥 月峯下作藏春三十舍 濟貌果海圍亂王陣 公聞怒 以匹馬單創 擊破濟王滅十萬兵

위의 기록은 삼국사기 진흥왕조에도 등장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은 6세기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뒤바꾼,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넘어 고구려 땅인 함경도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관산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백제 성왕이 전사할 만큼 치열했던 관산성 전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삼국사기에는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위의 기록에서 재미난 구절을 찾아 볼 수 있다. 바로 이두를 통해서다.

구분	내용
원문	甲戌濟王聖 自將十萬來圍三城 良州公南攻大元帥 月峯下作藏春三十舍 濟貌果海圍亂王陣 公聞怒 以匹馬單創 擊破濟王滅十萬兵
한자풀이	갑술년에 백제 성왕이 스스로 10만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삼성(삼년산성: 삼년산군 현재의 총복 보은)을 포위했다. 양주 공이 남쪽을 치는 대원수가 되어 월봉 아래 창고를 봄에 군대가 주둔할 때 세우는 영채(營寨) 30동을 지었다. 백제의 모과해가 (신라) 왕의 진영을 에워싸고 어지럽게 했다. (김무력) 공이 이를 듣고 노하여 한 자루의 창(槍: 鎗은 오기)과 한 필의 말로 백제왕을 격파하고 10만 병사를 멸하였다.
이두풀이	갑술년에 백제 성왕이 스스로 10만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3성을 포위했다. 양주 공이 남쪽을 치는 대원수가 되어 월봉 아래에서 매복한지[갑춘지] 30일 만에 백제가 거대한 바다처럼 혼란스럽게 신라의 진영을 포위했다. (김무력) 공이 이를 듣고 노하여 한 자루의 창(鎗: 鎗은 오기)과 한 필의 말로 백제 왕을 격파하고 10만 병사를 멸하였다.

만약 위의 글을 한자 자체의 뜻만으로 해석한다면 진흥왕의 명을 받고 충북 옥천지역으로 출동한 김무력장군이 한가롭게 영채를 30동이나 짓고 있었고 해석된다. 이는 긴박한 전후사정상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이두로 해석하면 전혀 색다른 문장이 된다. 문제의 作藏春은 봄에 영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두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저(作) 감(藏) 춘(春)³지의 형태로 읽히게 되는 것이다.

위의 글을 이두로 재구성하면 '김무력장군이 군대를 월봉하에 바짝 감춘지'가 되어 비로소 올바른 문장 해석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月峰(월봉)은 이두로 읽으면 '달뿔'로 읽히며, '달뿔'이 다시 한자화 되면서 鷄山(계산)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토대로 관산성이 위치한 충북 옥천 지역의 인근을 살펴보면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와 충북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행정리, 사정리의 실제 鷄山이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 이 곳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백제성왕이 전사한 유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속중병인보에 기록된 이두문을 통해 신라와 백제가 국운을 걸고 싸웠던 관산성 전투의 단편적인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김무력장군은 백제성왕의 군세가 대단한 것을 알고 직접 전면전을 펼치지 않고 현재의 충북 옥천군 계산에서 매복하고 기다렸던 것이다. 바로 연전연승으로 인해 교만해진 백제의 심리를 철저히 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역사서에 기록된 이두는 역사학의 블루오션이나 다름없다. 아직도 깨쳐지지 않은 이두들이 역사서 곳곳에 숨어 있으며, 우리가 쓰고 있는 말 한마디, 사투리 하나, 집안의 족보 곳곳에 숨어 있다.

이두는 지명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이두를 활용하여 김포(金浦)에 대한 음운적 유래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김포는 현재 경기도에 있는 지명으로 이곳 역시 김해와 마찬가지로 금포로 읽히지 않고 김포로 읽히고 있다. 따라서 이곳 지명 역시 '숲' = '질'이라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잡지를 보면 '김포(金浦) 지명은 '검포(黔浦)에서 유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⁴⁾ 일반적으로 김포라는 지명은 '신성한 나무(浦)란 뜻의 '검포(黔浦)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검포(黔浦)에서 '검'을 '깊'으로 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깊나무'가 보편적으로 신성한 나무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포지역에 있는 고지명 중에서 '질곳'이라는 지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만약 '黔'을 이두에서 訓借자로 본다면 '검다' 또는 '검은 빛깔'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검포(黔浦)는 말 그대로 '검은 포구' 또는 '검은 빛깔의 포구'가 된다. 그런데 궁교롭게도 김포지역은 뺨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고, 그 바다 빛깔 역시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물살이 센 편이라 뺨이 일어 그 물빛이 대체적으로 검은 편에 속한다.

그러므로 '검포'의 의미를 '검은 빛의 포구'라는 의미로 해석했을 때 현재 김포지역의 지형적인 요건과 상당히 부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검은 빛과 '숲'이 '검'으로 읽혀지는 것은 관계가 없다. 그런데 '金浦'가 '검포'였다고 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지만 김포의 주요 지명 중에 '질곳'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질곳'은 현지에서는 산형세가 거머리와 같이 길게 뻗어나갔다 하여 '거머리 질'자를 사용하여 '질곳'이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인근에 '毛山'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질'은 '숲'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毛'는 그 훈이 '털'이다.

옛날에는 '철'이 '털'과 유사하게 읽혔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⁵⁾ 따라서 '질곳'은 '거머리'보다는 '毛山'과의 연관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金浦'를 '검포'라고 한다면 '黔浦'와의 연관성이 궁금하지 않을 것이다. '黔'은 그 훈이 '검다' 또는 '검은 빛깔'라고 밝혔다. 그런데 한자 중에 훈이 '검은 빛깔'이라는 것이 또 있다. 바로 '칠(漆)이다. '黔'과 '칠(漆)은 '검은 빛깔'이라는 그 훈에

吏讀

서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김포의 지명이 '검포(黔浦) - '칠포(漆浦) - '김포(金浦) 변천되어 왔다면 적어도 그 음에서는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는 '金浦'가 '검포'로 읽히지 않고 '김포'로 읽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봐도 좋을 듯 싶다.

그리고 '金浦'의 또 다른 지명인 '감안진(甘岩津)'의 경우를 보면 보다 명확해지는데, '감안진'은 우리말 '까만진'을 한자로 옮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해(金海) 또는 김해 김씨도 같은 맥락에서 풀어본다면 충분히 소리의 유래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두는 대단히 중요한 학문이다. 가히 역사의 타임캡슐이라고 부를만한 것이다. 특히 지명유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만약 이두를 잘 활용한다면 삼국사기의 저술자인 김부식이 밝히지 못한 지명 300여개를 어쩌면 지금 모두 찾아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비록 이두는 그 글자형태는 사라졌을지 모르나, 그 소리형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신라시대 갓난아기를 뜻하는 '얼라' 처럼 말이다. 1,0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말이다.

1) 일제시대 간행된 조선최후의 지리서. 1937년 이병연에 의해서 편찬되었다.

2) 본관은 김해(金海). 아버지는 금관국 구형왕(재위 521~532)이며, 어머니는 분질수이질(分叱水爾叱)의 딸 계화(桂花)이다. 김유신의 할아버지이다.

532년 금관국이 신라와 합병될 때 부친구형왕과 함께 신라 사회로 진출하였다. 진골신분으로서, 신라 제1관등인 서불한(舒弗邯)까지 올랐으며, 551년 아간지(제6등) 관등으로, 고두림성(高頭林城) 군주(軍主)로서, 단양적성 전투에 참여했다.

553년 한강 유역을 지키는 신주(新州) 군주가 되었으며, 554년에는 관산성전투에 참여해 비장(裨將) 삼년산군(三年山郡: 충청북도 보은군)의 고간(高干) 도도(都刀)로 하여금 백제 성왕을 죽이게 하고, 나아가 좌평(佐平) 4명과 군사 2만 9,600명을 참(斬)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야사에 의하면 신라 조정에서 김무력의 공훈을 천양(闡揚)하여 경상남도 양산 영축산(靈鷲山) 일대를 사패지(賜牌地)로 하사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사서(史書)와 보첩(譜牒)을 면밀히 고찰한 결과 김무력 부부의 무덤이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통도사 경내 영축산 자락에 있음이 확인되어 후손들이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3) 우선 조선중기에 해당하는 15세기 무렵에는 용비어천가와 두시언해에 藏의 훈으로 'ᄃ초'가 보이거나 이는 'ᄃ초'의 고형(古形)으로 볼 수 있다.[전몽수, 고어연구초(3), 『한글』 51회]또 '藏'을 'ᄃ초다' 혹은 'ᄃ초다'로 쓰였고, '軍士(군사)를 [ᄃ초고(伏師)]라는 용례를 통해 그 쓰임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창돈, 『어휘사연구』(이우출판사, 1978)]

4) 長堤郡 本高句麗主夫吐郡 景德王改名 今樹州 嶺縣四戌城縣 本高句麗首爾忽 景德王改名 今守安縣 金浦縣 本高句麗黔浦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童城縣 本高句麗童子忽[一云 幢山縣]嶺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分津縣 本高句麗平唯押縣 [平淮押縣] 景德王改名 今通津縣. 『삼국사기』잡지 4.

5) 경기도 김포시 석모리에 있다.

6) 일례로, 天地를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턴지로 읽던 것을 구개음화현상으로 지금은 천지로 읽는다.



김규봉
소설가 · 시나리오작가,
/ 전 양산문화원 사무국장

문화광장

지역 문화 콘텐츠 기획

고객의 감성을 잡아라

역장 타마는 와카야마현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끌어 모은 공로로
훈공장의 지위를 하사 받음

이성은 결론을 낳고 감성은 행동을 낳는다

일본의 한 작은 지방 와카야마현(和歌山縣)의 기시역(貴志.).

이용객이 급감하며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가는 폐쇄 직전의 이 역을 기사화시킨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고양이였다. 기시역은 폐쇄직전의 기시역을 살릴 방안을 강구하던 중 역 주변을 떠돌며 먹고 잠자던 고양이 '타마'를 역장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고양이가 행운을 준다'고 믿는 일본사람들에게 검은색 모자를 쓰고 승객과 함께 사진을 찍혀주는 '고양이 역장'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다.

고양이 '타마'가 역장에 정식 취임한 2007년 1월 이후 기시역 등 10개 역이 연결된 기시가와 노선 이용객은 연간 210만명으로 늘어났고 기시역을 이용하는 승객 역시, 5만5000명 증가해 운임 수입만 1500만엔이 늘었다. 또한 다마 사진집, 캐릭터 등 관련 상품 판매액은 2700만엔 등 관광객 증가와 지역 인지도 상승을 고려하면 약 11억엔의 지역경제효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기시역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고양이 역장이라는 기발한 발상과 '고양이가 행운을 준다'는 일본인의 감성어필이 가장 큰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광고회사 사치엔사치(Saatchi & Saatchi)의 CEO였던 케빈 로버츠(Kevin Roberts)는 그의 저서인 "Lovemarks"를 통해 "이성은 결론을 낳고 감성은 행동을 낳는다"고 했다. 문화콘텐츠를 기획하는 기준과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보다 감성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지역축제 등 문화콘텐츠 기획 시 고객 감성을 사로잡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스스로 즐겁지 않으면 남을 즐겁게 할 수 없다.

고교생들의 즐거운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세계를 즐겁게 만든 삿포로 눈축제

삿포로 눈축제의 첫 시작은 삿포로 고교생 몇 명이 모여 길고 추운 겨울을 즐겁게 보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고교생들이 시내 공원에 6개의 눈조각을 만든 것이 지역에 화제가 되고 여기에 언론과 관광단체들이 가세하여 일본인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되었다. 또한 동계올림픽(1972년)을 계기로 일본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이제는 독일 옥토펠페스트, 브라질 리우카니발과 함께 전세계 3대 축제로서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즐겁게 지내기 위한 고교생들의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게 된 것이다.



삿포로 눈축제가 개최되는 삿포로 시 중심가의 전경과 눈조각 작품

Originality와 Story를 팔아라.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산타클로스 元祖 전쟁

산타클로스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살고 있는 마을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다. 이러한 '산타마을'을 놓고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치열한 원조전쟁을

바니에미 시 전경
산타클로스 우체국
산타클로스 기념품점



치렀다. 결론은 핀란드의 판정승.

핀란드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계기는 대규모의 물량공세가 아닌 핀란드 방송국의 한 아나운서가 “산타클로스는 로바니에미 마을에 있는 코르비툰 투리 산에 살아요.”라고 말하면서부터이다. 이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세계각지에서 산타에게 보낸 편지의 90%가 이곳으로 배달되어 1년 내내 전 세계 어린이들이 보내는 편지로 넘쳐난다.

즉 Originality를 선점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 인구 3만 5천명의 핀란드 ‘산타마을’ 로바니에미는 1년 중 8개월이 겨울이 열악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 관광수익금 6조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겨울 관광지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다.

상상력, 같은 것이라도 낫설게 하라

창조적 발상으로 일본 최고의 히트브랜드를 만든 아사히아마동물원 (旭山動物園)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아사히아마동물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방의 작은 동물원이었다. 그야말로 있는 것이라고는 동물들밖에 없던 곳이었다. 그 동물들만으로 기사화생하여 일본 최고의 동물원으로 꼽히는 동경의 우에노 동물원의 관람객 수를 추월하게 된다. 또한 2005년, 2006년 연속으로 일본 최고의 히트 브랜드로 선정되었고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일본 최고의 동물원인 우에노 동물원의 10분에 1의 규모에 불과했던 아사히아마동물원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동물원을 상상력으로 차별화한 행동전시 디자인이었다.

우리 안의 펭귄들을 우리 밖으로 내놓고 겨울이면 펭귄이 동물원에 쌓인 눈을 밟으며 산책하게 만들고, 수직 아크릴 원통의 바다표범 전시관을 통해 관람객이 360도에서 바다표범을 관찰할 수 있게 하였다. 관람객과 동물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전시로 어느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펭귄이나 바다표범을 낯설고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치를 관람객에게 제공한 것이다.

문화를 브랜딩하라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이제 문화는 일부의 계층이 누리는 고급 예술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이 되고 있다. 세계가 좁아지고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려는 지역, 도시의 국경을 넘어 무한경쟁이 시작된 오늘날, 도시가 자신만의 특색 있는 문화적 자산을 브랜딩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각 도시, 지역들도 이와 발맞춰 자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알리고 사람들을 유인하고자 수 많은



세계가 좁아지고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려는 지역, 도시간의 국경을 넘은 무한경쟁이 시작된 오늘날, 도시가 자신만의 특색 있는 문화적 자산을 브랜딩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지방의 작은 동물원에서 '행동전시'라는 독특한 발상을 통해 일본은 물론 세계적인 명소가 된 아사히야마 동물원

축제를 개발해 왔다. 매년 천여 개의 지역축제가 나름의 독창성과 창의성으로 관람객과 투자자를 유혹한다. 하지만 이렇게 우수축순처럼 만들어진 축제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콘텐츠로 브랜딩되고 있는가는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주 일부의 축제를 제외하면 대개의 축제들이 양적 팽창을 따라가지 못하는 질적 낙후성을 보인다. 대동소이한 포맷에 깊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 아이템으로 승부하는 축제로는 결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마케팅에서 기업은 물건을 만들지만 고객은 브랜드를 산다는 말이 있다. 그 도시에서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기획한다는 것은 그 도시의 매력을 브랜딩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도시의 가치를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다. 때문에 지역의 문화 축제를 개발하고 이를 키워나가는 것은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를 마케팅하는 것 못지않게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브랜딩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고객의 감성을 사로잡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든다면 우리도 산타클로스의 원조전쟁에서 승리한 핀란드의 로바니에미나 고등학생의 즐거운 아이디어로 전세계를 즐겁게 만든 샤프로 눈축제와 같은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전략적으로 또한 장기적 안목을 갖고 브랜딩해 나간다면 우리도 세계적인 우리만의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김찬형 제일기획 프로모션 본부장



김천의 또 다른 매력, ‘직지나이트투어’로 초대합니다.

직지나이트투어의 시작

“아빠 또 나이트가세요?”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의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다.

봄부터 가을까지 매월 몇 차례씩 쉬는 주말에도 곧잘 나이트투어행사로 인해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처지이고 보니 나는 주말이면 수시로 나이트를 가는 불량아빠로 단단히 낙인이 찍혀 버렸다. 돌이켜보니 문화원 식구가 된지도 어언 13년이 흘렀다.

그동안 술한 문화행사들을 겪었음에도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행사를 꼽으라면 단연 직지나이트투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면서 직지사가 가진 매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처음 직지사를 배경으로 한 야간 행사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을 확신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김천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너무나 이름답고 조화롭게 펼쳐 놓았다. 장고한 직지문화의 숨결과 몽환적인 빛내놓악과 댄싱분수, 은은한 조명과 함께 한 시 낭송과 와인 한 잔, 청정도시 김천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기에 너무 아름다운 김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말 김천시와 김천시지역혁신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김천문화체험수공모전에서 직지나이트투어에서의 감동을 생생히 기록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인천시 부평구 이재환 씨의 글 일부분이다. 대상작 외에도 수상작의 대부분이 직지나이트투어와 관련된 글이었음이 알려졌을 때의 뿌듯함





이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지난해 나이트투어에 참가한 1019명의 관광객들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한국관광공사와 경상북도로부터 추천 상품과 우수 관광 상품으로 선정되고 각 언론으로부터도 집중 조명을 받아 즐지에 방송과 신문에 얼굴을 여러 차례 오르는 호사를 했다. 지난해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일찌감치 4월부터 문화원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개설하고 10월까지 매월 1-2회 놀도에 맞추어 날을 잡아 인터넷 접수를 시작했다더니 6월초에 이미 전화가 매진되어 버렸다.

회당 150명을 상한으로 자동으로 접수가 완료되도록 하고보니 인터넷접수가 안된다며 위아래로 접수 청탁(?)전화를 받느라 직원들 모두 행복한 고민을 해야 했다.

야간 가족형 프로그램 직지나이트투어

이쯤에서 자라는 그만하고 참가 못하신 전국의 문화가족들에게 서면으로나마 직지나이트투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행사는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김천시가 주최하고 김천문화원이 주관하는 야간 가족형 문화, 역사 체험프로그램으로 주 무대는 천년고찰 직지사와 김천 최대의 테마파크인 직지문화공원이다. 참가비는 1인당 10,000원(초등생 5,000원, 유치원이하 무료)으로 직지사와 세계도자기박물관 입장료, 상해보험료, 저녁식사, 재래시장상품권(3,000원)이 제공되다보니 참가자의 부담은 사실 많은 편이 아니라고 본다.

먼저 5시30분까지 직지사산문으로 집결하여 30명 내외로 조를 편성하고 행사의 전체 일정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막이 오른다.

조별로 문화관광해설사 1인이 전담하여 행사의 끝까지 인솔 책임을 지며 입장 후 1시간에 걸쳐 직지사의 역사와 전설, 전각에 얽힌 숨은 이야기를 들으며 직지사 1600년의 역사 속으로 오롯한 여행을 떠난다.





직지사와의 만남

직지사는 신라에 불교를 처음으로 전한 고구려의 승려 아도화상이 서기 418년 신라 땅에서 두 번째로 창건한 사찰로 선산도리사와 함께 신라불교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는데 후에 고려를 건국한 태조왕건의 후삼국 통일과정에 직지사의 능여조사가 크게 기여하여 고려 말까지 왕실의 비호 속에 크게 발전을 거듭한다.

승유역불을 국시로 삼은 조선의 개국과 함께 불교가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직지사는 2대 정종임금의 태실이 대웅전 뒷산에 조성되는 왕실과의 인연으로 조선말까지 사세가 유지되고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의 출가득도 사찰이라 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 대찰로 자리를 잡게 된다. 낭랑한 해설사들의 음성이나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과 어울려 한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집을 떠난 남편을 찾아 경남 함천으로부터 달려오다 죽은 부인의 원귀를 제압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세웠다는 금강문이야기며 어린 사명당이 15세 때 낮잠을 자다 신목스님과 만나 출가를 하게 되었다는 천왕문 앞의 돌이야기, 고려 태조 때 경주 옥돌로 조성해 모셨다는 천불상의 위용과 그 중 서있는 탄생불을 단박에 찾아내면 아들을 낳는다는 천불전에 이르러 어느 짓곳은 해설사는 아들만 셋을 두었다는 할머니에게도

탄생불 찾기를 강요해 폭소가 터지게 한다. 이윽고 조선 7대 임금 세조의 입맞을 사로잡아 직지사반신진상법이 유래되고 10대 임금 연산군과 감 진상문제로 대립했다는 학조대사의 기개가 스며있는 수령 500년을 자랑하는 감나무 아래에서 아쉬운 여행을 끝맺는다.

꼬마들의 꼬마연등 만들기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꼬마연등을 만들기 위해 극락전 잔디밭으로 바뀐 길을 재촉해야 한다.

이곳에서 전국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김천포도를 넣어 빚은 포도송편과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 다도회원들이 준비한 한잔의 차(茶)로 직지사여행의 감동과 흥분을 잠시 달랜 후 이제 본격적으로 꼬마연등 만들기에 돌입한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동료들끼리 도우며 정성으로 만든 연등에 금년 한해 이루고자하는 소망을 적은 기원문을 붙인 후 스님의 인솔에 따라 대웅전 앞 삼층석탑으로 이동한다.

때를 맞추어 범종각에서는 중생, 축생, 조류, 어류에 이르기가 지 모든 삼라만상의 업보를 씻고 계도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담은 범종과 범고, 운판, 목어의 울림이 산사의 하늘을 수놓는다. 어둠이 나던 천년고찰 직지사가 정성으로 만들어가 숨에 품은 연등의 불빛으로 다시금 환하게 피어오른다.

보물찾기 행사장과 김천의 와인 맛보기

직지사를 뒤로 하고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는 보물찾기 행사장으로 힘찬 발걸음을 옮긴다.

직지사 산문 앞 세계도자기박물관 뒤뜰 잔디밭에 숨겨진 보물 쪽지를 찾은 참가자들은 행사 마지막 순서인 가족 어울림마당 시간에 쪽지에 적혀있는 김천의 특산물로 교환하게 된다. 찾은 이들의 환호와 그렇지 못한 이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백수문학관 뒤뜰로 이어진 고풍스런 나무계단을 오르면 고대하던 저녁식사가 “짜~안” 하고 준비되어있다. 김천비빔밥으로 이름 붙여진 저녁식사는 4.5월에는 김천 감문면에서 생산된 참외를 또 6.7월에는 김천 구서면의 자두, 8.9월에는 김천 대항면 포도를 넣는데 백수문학관의 기와를 타고 성큼 내려온 어둠속에서 짜악, 짜악 비벼대는 소리와 웃음이 감미로 보태져 더욱 맛있게 익어간다. 김천의 맛으로 시장기를 해결하셨다면 이제 김천의 향기를 맛보실 차례다. 문학관에서 직지문화공원으로 향하는 나무계단을 내려서면 김천산 포도로 만든 와인이 예쁜 유리잔에 담겨져 건네지는데 물론 어린이들은 금주(禁酒), 당연히 포도 주스가 제공된다.

와인을 들고 직지문화공원으로 이어지는 시비길을 걷노라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문화원 문화학교 시창작반 수강생들이 어둠을 가르는 낭랑한 목소리로 시비에 새겨진 유명시인들의 시를 라이브로 낭송한다. 이쯤 되면 신선당부를 무시하고 일찌감치 와인을 “원샷”하신 참가자들이 후회를 하기 마련이다.

직지문화공원의 자랑, 음악분수대

백 미터 남짓한 시비길을 귀로 또 입으로 김천의 향기를 음미하며 걷다보면 어느새 발걸음은 직지문화공원의 자랑인 음악분수대에 닿는다. 2004년 공원 준공과 함께 김천의 명소로 자리 잡은 이 분수대는 유명 팝송과 클래식 선율에 맞추어 약 20분에 걸쳐 사정없이 춤을 춘다. 힘이 불끈 넘치는 분수쇼가 마치면

이제 나이트투어의 대미를 장식할 장승광장으로 이동할 차례. 직지문화공원의 랜드마크로 세계 최고높이를 자랑하는 장승 옆에는 정체불명의 새끼줄들이 묶여져 있다. 우리 조상님들은 동구밖에 세워진 장승이 마을과 가정의 안녕을 지켜준다고 믿고 요긴한 기도처로 삼곤 했는데 정승을 들어 만들고 답돌이를 함께 했던 연등에 붙여진 기원문을 떼어 장승옆 새끼줄에 다는 것이다. 소중한 참가자들의 기원문은 소중하게 보관했다가 내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장에서 달집에 넣어 김천시민의 염원까지 보태어 태워지게 될 것이다.

또 광장 한 켠 에는 참외, 포도를 비롯한 김천의 특산물들을 판매하는 작은 시장이 서는데 이곳에서 기념품으로 제공된 재래 시장상품권으로 지역특산물과 교환할 수 있다. 이제 모든 참가자들과 문화원 회원들로 구성된 행사 진행요원들이 장승광장에 모여 하나가 되는 어울림마당이 펼쳐진다.

김천의 하룻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손에 손을 잡고 엄마는 아들에게, 딸은 아빠에게, 연인끼리 또 친구, 동료끼리 김천 직지사의 밤을 무대로 사랑을, 우정을 나눈다. 숨 가쁘게 직지사와 직지문화공원을 누비다보면 9시를 훌쩍 넘기기 마련이다.오전 내내 행사를 준비하고 4시간 가까이 행사장을 토끼마냥 뛰어다니다 보면 번번이 몸은 녹초가 되지만 황악산과 직지천의 맑은 기운을 받은 탓인지 오히려 정신은 맑고 마음은 편안하다.

항상 정성껏 준비한다고 하지만 뒷정리하는 마음 한 구석으론 아쉬움이 남는다. 대구에서 부산, 서울 또 전국의 어딘가에서 밟고 달려와 주신 모든 참가자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거듭 감사함을 전해드리며 모쪼록 김천에서의 어느 하룻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아빠 또 나이트 가세요?” 라며 입을 쉴룩이던 딸 정은이는 겨운 잠을 이기며 오늘도 늦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



송기동 김천문화원 사무국장



동두천문화원 “동두내 옛소리 물까부리” 제17회 경기민속예술제에서 대상 수상

지난 9월 4일과 5일 2일간 경기도 용인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7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동두천문화원(원장 안민규)에서 후원을 받아 출전한 동두내 옛소리보존회(회장 이채혁)의 『동두내 옛소리 물까부리』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경기도민속예술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민속예산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매2년마다 경기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경기도내 최대 민속경연대회로서 금년의 경우 제17회째로 지난 9월 4일 경기도용인시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출전하여 각 고장의 고유민속을 경연하는 행사이다.

대상을 받은 동두내 옛소리 물까부리의 유래는 옛날부터 모를 낼 때가 되었으나 가물어 물이 없어 모를 낼 수가 없어 하늘만 쳐다보고 비내리기만을 우리고장의 물 까부리는 옛날부터 모를 낼 때가 되었으나 가물어서 물이 없어 모를 낼 수가 없어 하늘만 쳐다보고 비 내리기를 기다리던 동두천시 지행동 사당골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민속놀이이다. 다른 곳에서는 가물어서 농작물이 타고 모를 낼 수가 없으면 기우제를 지내는 곳도 있고 신령님께 비는 신제를 지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고장 사당골 마을에서는 한마을에 사는 아낙네들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곡식을 까부르는 키를 하나씩 가지고 나가 앞에 흐르는 시냇물로 나가 맑은 물을 떠서 키에다 담고 하늘높이 까부르면서 각기 비 내리게 해달라고 주문을 비는 것이다.

그런데 물까부리에 참여하는 아낙네들도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첫 째로 첫아들을 난 아낙네라야만이 할 수 있으며 부정도 타지 않은 아낙이어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부간이 함께 참여하는 때도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동두내옛소리 보존회는 지난 2004년 7월 창립이래 현재에 이르기 까지 매년 정기공연을 개최하여 왔으며 각종 민속경기에도 출전하여 지난 제15회 대회에서는 3 위입상, 제16회 대회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소요단풍제초청공연, 경기민요경창대회 단체상수상, 전국두레소리 보존회 초청공연, 우리방송방영, MBC라디오 등 두내 옛소리 녹취, 동두내 특성화 예술제, 권농인의 날 실제주민 모내기행사 개최 등 10여회 이상 각종 민속경연대회참가와 정기(초청)공연을 가진 바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5월 15일에는 동두천시로부터 단체, 동두내옛소리, 보유자 이채혁 등 3개 부문에 걸쳐 무형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받는 등 동두천을 대표하는 민속단체로 발전하여 왔다.

이번 대회출전을 위하여 80여명의 전회원은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린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동두천시민회관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연습을 해왔었다. 금번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차지함으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민속보존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오는 2011년에는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어 전 회원은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의 입상을 위하여 오늘도 어김없이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들여다 보기

우리 나눔의 문화, 두레와 품앗이 정신

한국인들이 기부에 인색한 민족인가요?



한국인들은 기부에 인색하다고 한다. 생활환경은 많이 향상되었는데, 왜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는지는 식이다. 이런 시각은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편견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을 걸고 드려내며 남을 돕는 기부라는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다. 오히려 생활 속에서 두레나 품앗이, 동제, 계나 의례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나누는 일을 생활화한 민족이다. 나보다 남을, 개인보다 집단을 더 생각하는 민족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일정한 공간에서 농경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해 왔다. 이것은 삶의 방식이고, 규범이고, 가치라 할 수 있다. 이런 마을공동체는 혈연 중심의 가족공동체에서 출발한다. 가족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족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은 사회구조의 근간을 이룬다. 가족제도가 붕괴된 곳에서 그 어떤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각성 간에 사는 마을에도 그들 간에 친족 이상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존재한다. 그들 사이에는 몇 대, 몇 십대에 걸친 수많은 인연이 혼재되어 있다. 근래 명절풍속은 엄청난 귀성행렬에 차 속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고행길이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혈연에 못지않은 얽히고설킨 이웃과의 강한 지연과 학연이 그들을 끌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마을 구성원은 한 가족이라 할 수 있다.

마을의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같이 기원하며, 슬픔과 기쁨을 나눈다. 따라서 일공동체, 놀이공동체, 신앙공동체, 의례공동체가 형성된다. 일공동체의 핵심은 두레와 품앗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공동의 일상과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하루의 생활방식이 거의 유사하다. 농경사회에서 일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단순 반복되는 힘든 일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능률적이고 즐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이 방법을 터득했다. 단시간 내에 집단적인 일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마을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공동노동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두레라는 것을 만들어,



힘들고 괴로운 일을 즐겁고 효율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였다. 이런 일은 주로 김매기, 모내기, 수로(沕) 보수, 두엄용 풀베기, 다리 놓기, 추수, 길쌈 등에 두루 나타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모내기와 김매기라고 할 수 있다. 두레는 매우 조직적이고, 민주적으로 시행되었다. 일의 진행과 회계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6~18세부터 50세 전후의 노동력이 있는 남성들이 참여하는데, 마을 단위로 적을 경우 40~80명에서, 많으면 120~180명 선에 이른다. 모내기는 조선 후기에 일반화되면서 생산력을 높였으며, 두레라는 민중의 공동조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매기는 일반적으로 3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두레는 초벌(야시)매기와 두벌매기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모가 꽤 자란 시기에 하는 마지막 세벌(만물)매기는 각자 하는 경우가 많다.

참여 방식은 마을에서 해당 남성들이 전부 참여하는 경우와 가구당 1인씩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모두 참여하는 경우, 집집마다 토지와 노동력이 상하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곧 농토는 적는데 오히

려 많은 인원이 두레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 정 반대의 경우도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노약자, 과부, 지주 등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일정량의 돈과 곡식을 내놓아, 이것을 적은 토지에 많은 노동력을 지닌 어려운 이웃에게 분배하게 된다. 그렇지만 마을 구성원들의 노동력과 그 혜택을 정확히 일치시키기는 어렵다. 한편 가구당 1인씩 참여하는 경우, 1마지기당 걷는 일정한 돈은 마을 기금으로 쓰이거나 노동력의 대가로 지불된다.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 사업이나 어려운 사람의 구휼, 집단놀이의 비용으로 사용한다. 정초의 지신밟기도 마을 공동기금을 걷기 위한 방편이다. 풍물을 치며 각 가정에서 한 해의 복을 빌어 주고, 집안 안팎을 다니며 신명나게 놀며 자연스럽게 쌀과 돈을 걷는다. 돈을 내는 사람이나 걷는 사람이 즐겁게 참여하는 지혜로운 방식이다.

품앗이는 일과 혜택의 불균형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소집단간의 개인적인 노동력 교환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김장하기, 초가지붕의

이영 역기, 집안 대소사 일손 돕기 등에 나타난다. 품앗이는 동일한 노동력을 전제로 이루어지지만, 그 불균형을 맞추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어 김장을 할 경우, 누구네 집은 배추 100포기를 하고, 또 어느 집은 50포기를 할 수 있는데, 두 집의 품앗이는 심각한 노동력 불균형을 발생한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서로 손익을 따지지 않고 동등하게 일손을 나누었다. 그저 혜택을 더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은혜를 되갚으면 된다.

두레와 품앗이는 근본적으로 나눔과 협동의 정신에 입각한다. 따라서 약간의 불균형은 무시된다. 현대의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것이 두레정신이고 품앗이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두레의 중심에 풍물이 있다.

두레패가 일하러 갈 때나 돌아 올 때, 휴식할 때에 풍물을 친다. 일을 하는 도중에도 노동요 가락에 맞춰 악기를 두드린다. 이웃 마을간 두레패가 만날 때에는 길을 양보하라고 시비를 걸면서 두레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두 마을이 일부러 날을 잡아 의도적으로 한바탕 몸싸움을 하고 풍물을 치며 어울려 놀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일의 고됨과 지루함을 이겨냈다. 일과 놀이가 하나가 되는 매우 슬기로운 방식이다.

다른 공동체에 비해 두레는 기층집단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집단놀이, 마을신앙, 의례 등은 연중 몇 회에 그치나, 두레는 20~40 일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진다. 오랜 기간 이루어지는 집단적 생활활동

으로 공동작업, 공동휴식, 공동식사, 공동놀이가 이루어진다. 두레패는 역사적으로 보면, 단순한 공동노동집단의 형태에서 벗어나 유사시에 민중의 힘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강력한 자생적 민중 조직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촌로들은 주로 60년대까지 시행된 두레 공동작업에 대해 깊은 향수를 지니고 있다. 그래도 그 당시가 일할 맛이 나고, 즐거웠다고 회상하고 있다. 이런 전통사회의 공동체는 모든 생활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거짓되고 가식적인 행동은 있을 수 없다. 이들은 항상 거리감 없는 진솔한 삶의 자세를 갖게 된다.

현대사회에 와서 공동체가 가능한가? 과연 도시에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가? 사이버상에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는 어렵다. 공동체는 지역과 생업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인 집단체이다. 농촌지역도 전통적인 공동체의 성격이 크게 약화된 이 시점에, 도시 속의 공동체는 어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집단적 삶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학교, 직장, 거주지, 관심 집단 등은 모두 자기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심지어 인터넷 상에는 수많은 특정 사이트가 각자 이해관계와 취향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이제 공동체는 전통사회의 지리적 조건보다는 사회적 상호 대면 관계, 심정적·상징적 상호 연대에 의해 가능한 시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는 전통적 마을공동체보다는 새로운 직장공동체, 종교공동체, 사이



버공동체, 도시공동체라는 말이 나온다.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자유를 주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도우려는 마음이 희박해 질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 인위적으로 집단이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전통사회에서는 공동체의 가입과 탈퇴는 가능했지만, 실제로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이것이 오히려 전통 공동체의 장점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이 많다 보니 오히려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상대에 대한 이해심이 약해지게 되었다.

현대인들은 도시 속에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면서 정신적인 빈곤을 느낀다. 인간 사이에 상호 소외를 시키면서, 오히려 사람 냄새가 나는 새로운 공동체를 원하기도 한다. 도시의 새로운 공동체는 집단 구성원들이 인간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해, 공통의 관심사를 끌어내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근래에 유기농을 중심으로 한 도농복합공동체, 소 집단을 중심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공동체, 종교 집단의 신앙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공동 육아방, 지역 환경 개선과 감시, 유해 환경업소 추방,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놀이방, 대안학교 설립, 정월 대보름 놀이판 재현,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은 도시 속에 새로운 공동체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공동체는 무엇을 지향하고 얼마나 대면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인터넷이 기존 전통공동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장점이 있지만,

배타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질적인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온라인 상태의 한계를 오프라인(대면을 통한 관계)으로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사이버상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사이버라는 특성을 살려 바람직한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킨다면 새로운 자아실현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전통 공동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삶의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 공동체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강압적이며, 개인의 창의성을 억압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을 구성원들은 독립된 개체이면서 마을이라는 큰 틀에서 미분화된 존재이다. 따라서 현대의 공동체가 평등한 가운데,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살린다면 그 공동체는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기업의 구조 조정에 의한 고용 불안정, 사회 구조적인 모순의 노출, 극심한 빈부 격차, 이해 집단의 충돌 등에 의해 사회가 다양한 분화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공동체의 복원은 새로운 삶의 방향성과 사회 통합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나눔과 협동은 우리 민족이 지닌 생활 방식이다. 도시화 속에 생업이 바뀌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인 공동체적 삶이 붕괴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 여전히 본향(本郷)에 집착하며, 공동체에 향수를 지니고 있다. 어찌보면 수백, 수천년간 내려온 삶의 문화를 단 몇 십년의 삶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서구적 문화 기준으로 보아 기부문화에 인식하다는 주장은 가진 자 중심의 기부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나눔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액 헌금, 소박한 이웃돕기 운동은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웃에 대한 배려는 전통적인 나눔의 삶에 대한 실천이다. 지금은 지나친 이해관계보다는 더불어 산다는 입장에서 서로 돕고 나누는 두레정신과 흠앗이정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정형호 중앙대 겸임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들여다 보기

아름다운 가게

● 똑심 아름다운 나눔장터



헌 물건을 쓰는 건 친환경경?

“저기요...헌 물건 오래 쓰는 게 왜 친환경이예요?”

뜰망뜰망 장난기 많고 좀 당돌한 인상까지도 풍기는 눈빛의 한 어린이가 판매 참가자가 참가자들이 가져온 판매물품 중 부적합물품은 없는지 검사하느라 분주한 대학생 자원봉사자에게 다가서더니 시끄러운 주변상황을 고려한 듯 아주 큰 소리로 물어본다. 십중팔구, 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비뻔 외중에 이런 질문에 대답해 줄 여가가 없다거나 혹은 본인도 깊이 생각해본 적 없는 바라 난색을 표하며 말을 돌리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크게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선선히 말을 잇는다. “그건 말이야, 우리가 새 물건만 쓰면 땅 속에 있는 석유도 또 새로 파내서 써야 하고, 살아있던 나무도 더 베어야 하고, 공장에서 기계 돌리면서 내뿜는 CO₂도 전혀 줄어들지가 않는데. 하지만 네가 대형마트에서 새 장난감 사는 대신 여기서 다른 친구가 쓰던 괜찮은 헌 장난감을 사게 되면 새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셈이니까 그만큼의 자원은 추가로 소모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리고 팔았던 친구한테는 이미 소용없는 장난감이었을 테니 여기서 널 만나지 못했다면 버려지거나 방구석 어딘가에 처박혀서 세상에 존재하는 줄도 모르게 되었을지도 모르잖니? 그런 물건도 여기서 새 주인 만나 쓰임새를 찾으니 좋은 거지. 그런 사람이 너 혼자라면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여기 줄 서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헌 물건을 오래 쓰면 꽤 많은 나무와 석유를 아낄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헌 물건을 쓰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야. 여기 길게 줄 선 사람들이 함께 착한 소비습관을 만들어내면 그 습관들의 고리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착한 순환의 그물로 세상을 덮게 될 거고 그럼 지구가 조금 덜 더워지게 되고 그 다음은 뭘까?”

아이는 역으로 질문을 받게 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속으로 뭐가 말하고 싶던 한데 좀처럼 적당한 대답이 생각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결국 두 사람의 대화는 싱겁게 끝이 나버렸고 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처럼 감동적인 마무리를 기대했다가 한 20% 부족한 결말에 실망한 관객이 된 기분이었다. 시간이 좀 더 있었다더라면 자원봉사자 학생은 그 어린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 아이에게 생각의 키를 더 자라게 해주었을 텐데... 많은 사람이 오는 대규모 캠페인은 이런 작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점이 조금 아쉽다. 아이들의 질문은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던 상식을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대단한 마법을 갖고 있다. 평소 어렵듯이 알고 있다고 느꼈던 상황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질문을 받으면 순간, “그게 정말 그런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솟구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아름다운나눔장터를 지금의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유지시켜 준 것은 바로 이 장터를 찾아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보챌 때 ‘휴일 늦잠 방해치 말라’ 혼내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와 준 부지런한 부모님들의 덕분이다.



나눔과 순환, 특색 아름다운나눔장터

헌 물건의 순환으로 자원낭비를 줄이고, 그 부산물인 기부금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특색 아름다운나눔장터를 아름다운가게가 운영한 지도 벌써 6년째다. 처음에는 '나눔과 순환' 이라는 단순한 목표로 출발한 아름다운 가게 표 베품시장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어린이들에게 환경·나눔 교육의 살아있는 체험장을 제공하는 대안적 가족 여가문화를 창조하고 있다든가 지방 정부와 NGO가 함께 만들어 가는 대안적 생활문화캠페인이라 특별한 수식들이 덧붙은 것이 운영주최로서 싫지만은 않은 '진보'라 생각한다. 이렇게 변화된 점이 있는가 하면 2004년 첫 시작 때나 지금이나 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는 순 시민참여형 헌 물건 베품시장이라는 변치 않는 원칙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 해 3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이 큰 장터를 지난 6년간 변함없이 매년 1천여 명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운영해왔다는 점과 모금 된 기부금과 기증품이 다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이는 '순순환 구조' 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급속도의 경제성장 그리고 그 후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뤄낸 정말, 몇 안 되는 기적을 보여준 나라들 중 하나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력은 구매력의 관점에서 볼 때 약 14배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이와 똑같은 결과를 달성하기까지 영국은 18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약 2백 년, 미국은 186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1백50여 년이 걸렸다고 하니 이는 조지 3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태어난 영국 노인이나 링컨 대통령 재임기간 태어난 미국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있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총량인 것이다. 이렇게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얻은 것도 많았지만 잃은 것도 있다. 사치를 금기시 하는 전통, 사람과 자연이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던 생활양식은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성장과 효율 위주의 경쟁과 소비를 미덕으로 삼는 20세기적 가치관으로 변했다. 풍요의 세기에 태어난 대한민국 서울의 어린이들은 형제간, 사촌 간에 물려 입는 옷의 좋은 점을 잘 모른다. 몽땅연필을 헌 볼펜깍지에 끼워 더 오래 쓴다면 그런 장난할 시간에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라는 엄마의 호된 꾸중이 날아오기 십상이고, 가정형편이 자기만 못한 친구와 짝꿍이라도 되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라도 있을까 부모가 학교로 찾아가는 것이 이해 못할 일도 아닌 그런 사회가 되어있다.

이런 분위기의 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 것을 조금 나누자,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해 헌 물건을 더 쓰자' 고 하면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 싶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목소리에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만 묵마르게 기다려온 그 무엇을 만나기라도 한 듯이 조금씩 반응하며 모여들었고 내 것을 나누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참여연대 앞마당 작은 베품시장에서 출발한 대안적 생활문화운동의 씨앗은 지금 현재 전국 100여개 아름다운가게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켜야 할 (이유 있는) 규칙이 많은 상설 베품시장 '아름다운나눔장'



터'로 꽃 피어 있다. 대량으로 찍어내고 대량으로 소비한 후 미련 없이 버리던 현대사회의 소비 프로세스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재순환 과정을 늘려 소비와 폐기의 패턴에 변화를 주고 있으니 아름다운가게의 나눔과 순환 게릴라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 아닌가!

어려운 이웃의 희망이 되는 선한 순환의 구조

요즘은 초등학생도 아는 일명 '재화와 용역의 흐름'이 이런 나눔과 순환의 실천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희망이 되는 선한 순환의 구조를 갖게 되면서 얻은 가장 큰 결과물이라면 역시 작년과 재작년 선한 순환의 부산물로 모인 약 5천7백여만 원이 인도 동북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선사한 배움의 기회였다. 불가촉천민이란 이유로 '시체를 버리는 곳'인 버려진 땅 등게스라리에 모여 대대손손 비인간적 환경에 격리된 채 살아온 사람들에게 학교와 유치원을 지어주고 인도 사회 안에서 계급을 벗어난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을 한 것은 또 다른 선순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마을 어린이들이 꼭 유명한 과학자, 또는 저명한 인도의 사회지도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좀 더 적극적 자세를 갖게 되면 그들 자신을 바꿀 것이고 그들이 바뀌면 가족이 바뀌고 그런 분위기가 더 나아가 마을을 바꾸게 될 것이다. 결국 지금 어렵게 하루하루의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그 어린이들이 변화의 그물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선한 순환의 그물은 대한민국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머나 먼 인도에 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그물이 좀 더 촘촘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은 지금보다 조금 더 시원해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아름다운가게가 부지런히 일해야

할 목표가 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가장 적은 양의 CO₂를 배출하는 태평양의 작은 섬 투발루가 기후변화의 제 1 희생자가 되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멀리 않은 미래에 사라지게 될 것이란 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 일인가. 발생시킨 CO₂라고는 자기가 내뿜는 숨이 전부인 북극곰들이 뜨거워진 지구 탓에 원래 살던 빙하를 잃고 익사하거나 굶어 죽는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아이러니 한 일인가. 어쩌면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아름다운가게가 엮고 있는 선한 순환의 그물이 이런 반어적 비극 속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대한 그물이 될 기회는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를 기막힌 반어적 비극의 희생자 대열로 한 발짝 빠르게 밀어내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사실만은 기억해야 한다. 선한 그물이건 악한 그물이건 세상 모든 일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 행위의 결과는 멀리 돌고 돌아서라도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부메랑이니 말이다.



박설경 아름다운가게 기획사업팀 간사

호국충절과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

의령 입산
문화·역사마을 준공식 개최



문화역사와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한

정신문화의 고장 경남 의령군 부림면 입산마을이 문화역사마을로 힘찬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의령문화원(원장, 강홍석)은 지난 8월 25일 의령 입산마을에서 3년에 걸쳐 추진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관내 용덕초등학교 농악대의 땅울리기 식전행사와 강홍석 의령문화원장의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공로자의 감사패 전달, 사업경과보고, 마을답사, 축하공연 등 준공식을 개최했다.



특히 김채용 의령군수, 조진래 국회의원 등 관내 주요 기관장과 조훈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장을 비롯한 경남도내 문화원장들 그리고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지역인 안성, 원주문화원장이 참석하여 준공식을 축하했다.

또한 이번 준공식의 주인공인 입산마을 및 부림면 주민들 300여명이 참석하여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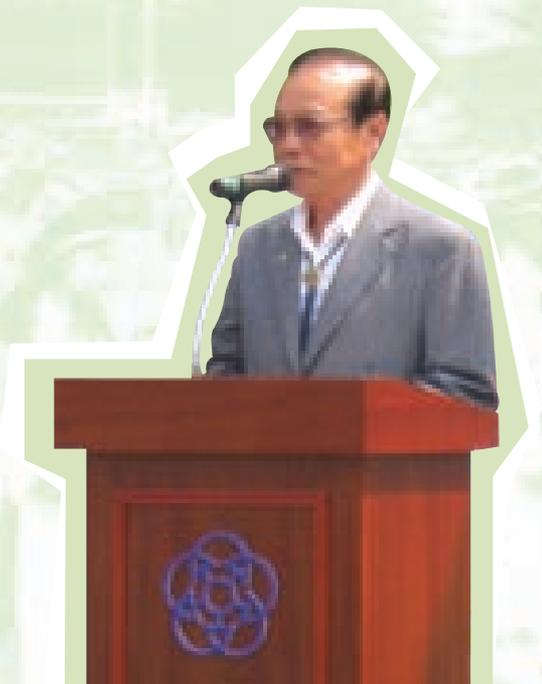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을 대신한 조훈래 경남도지회장의 격려사에서 “마을의 전통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와 역사가 보존되고 마을수입도 높아지는 본격적인 입산 문화역사마을로 길이 발전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

입산마을은 입산초등학교(폐교)를 리모델링한 입산문화역사관을 중심으로 서당교육, 전통민속주 스프주빚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현대식 시설을 갖춘 체험관, 전시관, 체육시설, 숙박시설이 있어 학교, 기업 등 단체 연수와 워크숍 등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백산안회제 생가, 고산재, 상로재, 유곡천 등 풍부한 문화역사, 생태자원들과 수려한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의령문화 · 역사마을 준공식

“마을의 전통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와 역사가 보존되고 마을수입도 높아지는
본격적인 입산 문화역사마을로
길이 발전되기를 바란다.”





수집이라는 취미의 묘미

사람은 누구나 지나간 세월을 모두 아름답게 생각하게 마련이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며 이러한 본능이 보다 적극적으로 되면 옛것을 수집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을 지속적으로 모으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집가라고 부른다. 단순히 남들이 없는 것을 손에 넣는 쾌감만으로는 이들의 열정과 끈기를 다 설명하기는 힘들다. 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모으도록 하는 수집의 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적인 성취감이다. 특정한 한 가지를 모으다보니 쌓여가는 것은 분명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건의 양이지만 자연스레 그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얻는 내공도 쌓이게 된다. 모아두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즐겁게 모으다 보면 자기의 삶과 함께 특정시대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수집가들은 수집이라는 취미를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창간사의 매력에 창간호 수집의 길로

나의 취미는 책 수집이다. 그 역사가 금년 들어 38년이 되었다. 지금 소장하고 있는 책은 정확히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5만여 권이 된다. 이중 창간호는 무가지를 포함하여 10,000여 종에 이르고 시집, 만화, 문학류단행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밖에 역사, 예술, 향토사 등 전 분야에 걸쳐 마음에 드는 책을 사서 모으고 있다. 책 모으는 재미에 빠지다 보면 걸잡을 수 없게 된다. 전국 방방곡곡 헌책방은 물론 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보물찾기 하듯 뒤지며 시간과 재산 정열을 바친다. 책을 좋

아하다보니 구하게 되고 구하다보니 쌓이게 되었다. 책 모으는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이다. 즉 처음에는 책을 접하여 사랑하다가 책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결국은 책을 모으는 수집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책을 모으고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의 문화가 발전해 간다는 것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내가 책 수집을 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입 재수를 할 때 참고서를 사러 인천의 배다리 헌책방을 자주 찾았는데 그 당시 배다리 헌책방 거리는 서울의 청계천 책방거리 부산의 보수동 책방거리 등과 함께 일정거리 안에 헌책방이 밀집된 헌책의 보고(寶庫)였다. 나는 그 곳에서 참고서를 살 때 문학휴단행본, 현대문학 과월호 등을 사서 읽곤 했다. 72년쯤으로 기억되는데 배다리 한 헌책방에서 〈여류문학〉등 창간호 2권을 사게 되었다. 창간호(創刊號)에는 창간사라는 것이 보통 책 서두에 있어 그것을 읽게 되는데 그 창간사의 매력이 나를 책 수집 특히 잡지 창간호 수집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책수집의 어려움과 책방주인과의 에누리

그 동안 책 수집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움이 공무원의 박봉에 적지 않은 돈을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는 헌 책 구입에 쓰는 데에 집사람과 마찰이 생기고 갈수록 쌓여가는 책들로 인해 온 집안이 창고로 변하고 특이 이사 다닐 때 마다 책을 싸고 푸는 일이 장난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제는 집 사람도 이해를 하고 그러려니 하고 있다.

돈을 아껴서 책을 사다보니 책방 주인과의 흥정, 심리전 등이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사이 인터넷 헌책방, 책 경매장 등 헌책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고 책값도 어느 정도 정해져 거래가 되고 있어 책방 주인과의 밀고 당기는 심리전이 없지만, 예전에는 헌책방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귀한 책을 만났을 때 책방주인이 책값을 얼마나 부를 것인지 순간의 심리와 책값의 흥정 등 수많은 접점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연출이었다. 특히 헌책방에서 구하기 힘든 희귀본을 발견 했을 때 과연 주인이 그 책값을 얼마나 부를 것인지 두근거림이란. 이때 주인이 그 책의 가치를 알면 비싸게 부를 것이고 가치를 몰라 헐값으로 팔았을 때는 큰 횡재를 한 기쁨으로 마음이 벅차지만 표정관리를 하면서 책을 손에 쥐고 책방을 나와서 느끼는 희열은 요새로 말하면 로또복권 당첨된 것 정도의 기분이라 하겠다.

책을 구입할 때의 몇 가지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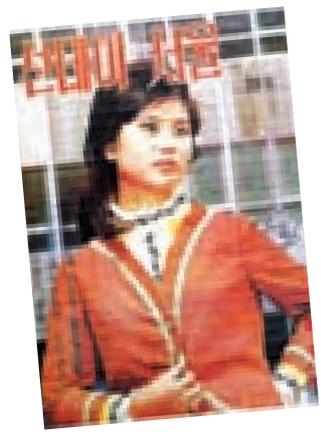
대부분의 수집가가 그렇겠지만 내가 책을 구입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틀리는 대로 발품을 팔아 헌책방을 뒤진다. 수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없지만 대다수의 수집가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발품을 파느냐 즉 수집하는 사람의 노력과 정성이다. 둘째 한번 보고 마음에 든 책은 값이 비싸다고 생각 되도록 사야한다. 다시 그 책을 못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다시 만나더라도 책값은 그때보다 더 주어야 할 수 있다. 셋째 같은 수집가(동업자) 끼리는 책을 절대 빌려 주지 않는다. 빌려주면 책 욕심 때문에 돌려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상은 점점 겉가지를 정리하고 버리면서 오직 핵심 알맹이만을 외치며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 새로운 것에 눈이 멀어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지난 과거는 관심 밖의 일로 치부되는 우(遇)를 범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교훈이 말해주듯 새로운 것도 옛 것 이라는 토양위에서 그 싹을 틔우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이제 많은 수집가들은 오히려 남들이 버리고 지나쳐 버리는 곳으로 눈을 돌려 과거를 향해 홀로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한다. 앞만 보고 달리기에는 아직 우리의 지난 날 들이 소중한 그리워 지나온 뒤 안길을 돌아보면서 모으고 또 모은다. 불과 몇십년도 안된 우리의 과거사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현실을 반성하는 동시에 우리의 자화상을 다시 그리고자 하는 수집가들의 세계가 세삼 마음에 와 닿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취미로 시작한 수집에 포로가 되고 싶지는 않다. 그저 바라는 것은 모은 책들이 역사적 자료로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관하려는 개인 수집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이번호를 포함하여 앞으로 3회에 걸쳐 나의 책 수집 편력 중 잡지 창간호와 우리나라의 스테디셀러(Steady Seller)와 베스트셀러(Best Seller) 그리고 만화에 대해서 소개 하고자한다.

창간호에 대한 이야기

그 첫 번째로 잡지 창간호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잡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나 1892년 11월에 창간한 〈코리안 리포지토리〉를 최초의 잡지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896년 2월에 창간된 〈친목회 회보〉가 잡지의 효시라는 주장도 있으며 1896년 11월의 〈대조선독립협회회보〉가 최초라는 사람도 있으며 지금은 고인이 된 서지학자인 안춘근 씨는 1883년 10월에 창간된 〈한성순보〉를 잡지의 효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체로 국내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잡지인 〈대조선독립협회회보〉를 잡지의 효시로 보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잡지가 발행되기 시작한지 어느덧 1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잡지는 한나라의 총체적인 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 이는 잡지가 그 나라의 학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산업 등 모든 분야의 사회현상과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잡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특히 잡지의 첫 호인 창간호(創刊號)는 새로운 잡지를 내는 사람들의 꿈과 정열 그리고 혼이 배어 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생명체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창간호 발간을 종종 산고(産苦)와 비유하기도 한다. 창간호의 창간사를 읽어보면 그 잡지가 추구하는 방향, 성격, 내용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잡지를 만든 사람들의 정성이 축약된 최선의 결정판 이라는 점 등의 매력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창간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소장하고 있는 창간호 1만 여종이 나에게는 하나하나가 지식과 같이 다 소중하지만 그중에서도 애착을 갖고 있는 <한성순보>와 <선데이 서울>을 소개 한다.

한성순보와 선데이 서울

<한성순보>는 조선개국 492년(계미 고종 20년 1883년) 10월 1일 (양력 10월 31일) 저동(祿洞)의 통리아문박문국(統理衙門博文局)에서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다. 봉건 조선정부가 발행한 관보로서 순한문신문이며 체제는 4×6배판 잡지 형으로 순간(旬刊)으로 발행되었다. 1884년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 때에 박문국 청사가 불타 버려서 폐간 되었다. 순보는 1호에서 36호 (1884. 10. 9)까지 남아있다. 그 후 <한성순보>의 후신으로 1886년 1월 25일에 <한성주보>가 창간되었다. 내용은 <한성순보>와 비슷하였으나 주간으로 발행하고 본문에 한글을 사용하여 근대 신문에 한 걸음 더 접근하였다.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으로서 우리나라 신문 발달사는 이를 출발점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내가 소장하고 있는 <한성순보> 창간호는 현재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인 최중수 회장님 댁에 놀러 갔다가 소장하고 있으신 고서를 보다가 그 속에서 발견하여 간청을 드렸더니 선뜻 내주시 덕으로 나의 애장본 1호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선데이 서울>은 1968년 9월 22일 주간지로 첫 호를 선보였다. <선데이 서울>의 출현으

로 우리나라 최초로 주간 대중 연예지 시대를 열었고 군사정부 시절에 풍속에 대한 엄격한 규제 일변도에서 토종적인 선정성을 선드해 나간 원조 대중지로서 역할이 지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주간경향>, <주간여성> 등 유사종류의 대중지를 탄생케 했다. 지금 잣대로 볼 때는 <선데이 서울>의 내용이나 화보 등을 보면 선정성은 그리 찾아 볼 수 없고 평범한 잡지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당시 길거리나 특히 장거리를 가려고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러 가는 가판대에는 예외 없이 <선데이 서울>이 수북이 쌓여 있어 필수품으로 사보고 놔두고 내리면 여지없이 다른 사람이 집어서 보는 인기 잡지였다. 현재 <선데이 서울>은 7080 향수를 등에 업고 문화상품으로 팔려 나가고 있다. 그때 게재 되었던 내용의 시대성 뿐 만 아니라 책 그 자체가 상품이다. 추억을 회상시키는 각종 전시회에서 필수품으로 등장하고 추억을 콘셉트로 하는 음식점, 술집 등에 장식품으로 책이 진열되기도 한다. 창간호 발행 당시 정가가 20원인데 지금은 발행연도에 상관없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내가 소장하고 있는 창간호도 몇 년 전에 책 중간상에게 10만원을 주고 산 것이다.

이와 같이 <선데이 서울>이라는 매체 하나가 한국대중문화에 끼쳤던 영향으로 볼 때 <선데이 서울>은 지금으로 봐서는 하나의 문화 코드라고 의미를 부여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잡지도 하나의 시대를 반영해주는 역사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안정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가고문적 可考文籍

조선전기 술의 금고, 산가요록



역사는 앞으로 전진하지만, 뒤로도 확장된다. 잊혀져버린 과거의 기록이 발견될 때마다 새로운 과거도 함께 펼쳐진다.

음식과 술에 관심 있는 내게 책 한 권을 꼽으라면 <산가요록>이다. <산가요록>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식품서다. 이 책은 2001년 계명문화대의 김용원 교수와 우리문화가꾸기회의 이훈석씨가 우연하게 폐지더미에서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비록 책의 앞부분이 훼손되고 뒷부분만 남은 상태이지만 식품뿐 아니라, 작물, 원예, 축산 양잠 등을 망라한 종합농서이다.

또한 이 책은 우리나라 사람에 의한 최초의 종합농서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산가요록> 이전에 쓰여진 농서인 1415년의 <농서집요>와 <양잠경험촬요>, 그리고 1429년에 편찬된 <농사직설>이 있으나 이들은 식량작물과 양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종합농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책이다.

폐지더미에서 발견된 <산가요록>의 끝에는 전순의 찬 산가요록 종(全循義撰 山家要錄終), 최유빈 초(崔有?抄)라고 적혀 있다. 전순의라는 이가 편찬한 책을 최유빈이 베껴 쓴 책이라는 뜻이다. 저자 전순의는 정확한 생몰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종, 문종, 단종, 세조 때

에 활동했던 어의(御醫)다. 1440년 세종의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을 치료하여 세종으로부터 옷 한 벌을 상으로 받은 적이 있고, 세조의 즉위를 도와 일등공신이 되었으며, 1464년에는 세조의 병간호를 잘한 공로로 정2품 자헌대부에 오를 만큼 출세한 인물이다. 하지만 의학에 종사한 신분이다 보니, 집안이나 나라에서 전순의에 대한 뚜렷한 행적을 남겨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산가요록〉은 전반부가 누락되긴 했지만, 필사해서 전해오는 67면 중에서 식품 부분이 60%를 차지한다. 51종의 술빚기와 술맛이 변하지 않게 하는 4가지 방법, 13가지 장 담그기 법, 7종의 식초빚기, 오이지와 가지김치와 동치미등 22종의 김치 담그기, 생과와 가지와 고사리 등 13가지 저장법, 물고기와 계란과 고기말리기와 삶는 법 8종이 담겨 있다.

이중에서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분야는 51종의 술빚기와 술맛이 변하지 않게 하는 4가지 방법이다. 〈산가요록〉이 세상에 소개되기 전까지 술과 음식에 관련된 가장 오래된 국내 문헌은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수운잡방〉이었다. 음식을 소개한 옛 조리서들을 보면, 술의 비중이 아주 높다. 안동사람 김수(1481~1552)가 기록한 〈수운잡방〉에는 모두 121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술이 59항목, 누룩 만들기가 2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술은 종류도 많고, 빚는 법도 다양하다보니 옛 조리서에서 곧잘 비중 있는 항목으로 다뤄진다.

〈산가요록〉에 소개된 술의 종류가 51가지이니 아주 많은 편이다. 그 술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오늘의 술문화와 어떻게 다른지, 오늘의 술빚기와 어떻게 다른지를 관찰할 수 있다. 전순의가 세조 연간에 높은 벼슬을 하고, 전성기를 누렸다는 점에서 그 무렵에 책을 저술하였다고 가정하면 1450년 경인 조선 전기에 저술된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고로 〈산가요록〉은 조선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술이라고 볼 수 있다.

요즈음은 발효과학이 발전하고 냉장시설도 좋아서 양조장들이 4개월 양조를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세상의 조화를 따져 길일을 택하여 술을 빚었다. 〈산가요록〉에서는 술 빚기 좋은 날로 정묘, 경오, 계미, 갑오, 기미일을 꼽았다. 봄에는 이십팔수의 3번 짜날(저일)과 7번 짜날(기일)에 빚고, 여름에는 이십팔수의 2번 짜날(향일)에, 가을에는 이십팔수의 15번

짜, 겨울에는 이십팔수의 12번째 날에 빚으면 좋다고 했다. 왜 조선시대에는 날을 가려서 술을 빚었을까? 물론 장을 담글 때도 택일하여 빚었다. 요사이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는 것처럼, 손 없는 날에 술을 빚고 손 없는 방위에 술독을 놓아서 부정 타지 않고 술이 잘 되기를 바랬다. 요즘도 아산 외암리에서 연엽주를 빚는 참관객에서는 손 없는 날에 술을 빚고 방위를 따져서 술독을 놓아둔다.

술이라는 게 까딱 잘못 다루면 맛이 시어지거나 망쳐지기 때문에 주술적인 힘을 얻어 부정을 물리치려 했던 것이다. 그 주술적인 관습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술을 가려서 빚으라는 것인데, 이는 술을 함부로 빚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산가요록〉에는 현대에는 맛볼 수 없는 술들로 가득차 있다. 술 이름을 열거해보면, 소주, 향료, 오지춘, 이화주, 송화천로주, 삼해주, 벽향주, 아황주, 녹파주, 유하주, 두강주, 죽엽주, 여기주, 연화주, 황금주, 진상주, 유주, 절주, 사두주, 오두주, 육두주, 구두주, 모미주, 삼일주, 칠일주, 점주, 무국주, 소국주, 신박주, 하절삼일주, 하일절주, 과하백주, 손치사하일주, 하주불산법, 부의주, 급시청주, 목맥주, 맥주, 향온주, 사시주, 사절통용육두주, 상실주, 하승사절주, 자주, 예주, 삼미감향주, 감주, 점감주, 유감주, 과동감백주, 목맥소주가 있다.

모두 51개의 술중에서 현재 같은 이름으로 빚어지고 있는 술은 10종류로 소주, 이화주, 삼해주, 황금주, 점주, 소국주, 부의주, 향온주, 자주, 감주 정도다. 하지만 이 술들도 빚는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머지 80%의 술들은 까맣게 잊혀져 버린 술이다.

인용한 글의 출처가 불분명한 고조리서를 볼 때면, 글의 내용을 어디서 인용한 것일까 아니면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쓴 것일까 의심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산가요록〉에 나오는 51개의 술은 전의순가 모두 개발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확인할 수 있다. 술은 그 속성상 그림이나 목공예품처럼 하나 만들고,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술은 한번 만들었다하더라도 마셔버리고 나면 사라져버리니, 똑같은 술을 만들어내기만 하더라도 훌륭하다는 말을 듣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술로 명인이 되거나, 무형문



화제가 된 장인들을 보면 모두 술 하나에 명인 하나가 나올 정도다.

전순의는 이 술을 개발하지는 않았고, 이 술이 빚어보았거나 빚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농촌 진흥청에서 <산가요록>을 번역 발간할 때에 해제문을 쓴 김영진의 견해에 따르면 전순의가 당시의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전순의가 의관으로서 어선(御膳, 임금의 식사)을 담당하는 사용원의 관원은 아니었으나 임금의 건강을 담당한 직무의 연장으로 식품의 가공이나 조리기술을 가까이 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러 가지 술 빚기를 보면 예주와 삼해주는 쌀 20두(360kg), 향료와 이화주 및 벽향주 등은 쌀 15두(270kg) 등 궁중의 규모가 아니고는 쓸 수 없는 대량의 생산규모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산가요록>에는 소주류보다는 청주(약주)류가 주로 소개되어 있는데, 대부분 뽕쌀과 누룩을 주축으로 만든 술들이다. 약재가 들어간 술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요즘 우리 술이 약재가 들어간 약주가 대신인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약재가 들어간 약주의 보급에 대해서 <동의보감>의 영향이다, 가양주로 전승되면서 생겨난 특성-건강에 좋은 술을 빚으려는 경향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적어도 <산가요록>을 보면 약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약재가 들어간 약술의 전통은 조선 전기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 상업화된 술빚기 방법을 보면, 생쌀을 발효시키는 법(국순당 백세주 제조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두밥을 찌거나 밀가루를 찌내는 방식을 취한다. 전통주도 보면 밀술 담글 때 백설기를 찌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고두밥을 찌서 술을 빚는다.

그런데 <산가요록>의 술빚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고두밥을 짓는 방식(연화주, 부의주)보다는 쌀을 가루내서 끓는 물을 부어서 반쯤 익히는 방법(유하주, 두강주), 쌀을 가루내서 떡을 만드는 방법(죽엽주, 절주, 모미주, 허주불산법), 쌀을 씻어 아주 뜨겁게 끓인 물에 잠시 담갔다 식히는 법(여가주), 쌀을 곱게 가루내어 죽을 쑤는 방법(황금주, 진상주, 유주, 오두주, 삼일주, 칠일주, 소국주, 신박주, 하절삼일주, 하일절주, 과하백주, 급시청주, 사시주), 쌀을 가루내서 바삭 볶아 죽을 쑤는 방법(육두주), 쌀을 가루내서 푹 찌 뒤에 끓은 물을 섞는 방법(구두주), 가루내어 구멍떡 만드는 방법(점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쌀을 가공하여 술을 빚는다.

〈산가요록〉을 통해서 볼 때, 죽을 써서 빚은 술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죽쭈기보다 고두밥짓기가 보편적인 형태가 된 것은, 술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고두밥 짓기가 대량화와 기계화가 손쉽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순하게 죽쭈기에서 고두밥짓기로 변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술맛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 전기의 술맛과 지금의 술맛이 다르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요소이다.

〈산가요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누룩을 유난히 적게 사용하여 술을 빚는다는 것이다. 죽엽주는 쌀 6말에 누룩이 1되5홉이 들어가고, 두강주는 멥쌀 5말에 누룩 5되가 들어가고, 소국주는 멥쌀 15말2되에 누룩가루 1말이 들어간다. 누룩의 비율이 10% 미만인데, 요즘 민가에서 술을 빚는 것을 보면 쌀과 누룩을 1:1 비율로 넣는 경우가 보이고, 술을 잘 빚는다는 이가 1:0.5 비율로 넣는 경우와 견주면 엄청나게 누룩을 적게 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적인 분석에 따르면 전통누룩의 경우에 쌀의 10% 정도의 누룩을 넣어야 알뜰하게 술을 빚을 수 있다. 그 이하가 되면 수율(술의 양)이 줄어들거나, 단술이 되고 미는데, 〈산가요록〉의 술들은 알코올 성분이 강하지 않은 단맛이 도는 술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는 누룩이 거의 들어가지 않다가하여 무국주(無麴酒)라는 술도 있다. 무국주의 경우는 멥쌀 15말 5되에 누룩가루 1되와 밀가루 3홉을 섞어서 빚었다. 이 짬 되면 술이 아니라, 죽을 삭혀서 먹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 듯싶다.

조선전기의 사람들이 어떤 술을 접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가요록〉은 대단히 소중한 책이다. 그런데 단지 그 풍경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책을 보면 그 술을 그대로 빚을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붙어있다는 것이다. 옛술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게 〈산가요록〉은 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아놓았다. 그러니 이게 보물이 아니고 무엇이 보물이란 말인가?

1 농촌진흥청에서 2004년 고농서국역총서 8권으로 발간한 〈산가요록〉
 2 〈산가요록〉 원본의 술빚기 부분
 3 〈산가요록〉 끝부분, 전순의 찬이 써진 부분



허시명 여행작가 / 술평론가

기획

韓國의 禮節

우리나라는
예절의 나라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2. 한국인 정신(韓國人精神)과 예절

가. 퇴폐(頹廢)한 한국인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서기전 268년의 동이열전에는 한국을 '예절의 나라' 라고 하였는데 현대도 동방예의지국인가? 그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왜일까?

현대 우리나라의 정규 교육과정에는 예절이 없다. 3백개가 넘는 대학에 1천개가 넘는 전공학과가 있는데 예절관련 학과가 없다. 현대의 한국에는 예절을 배우려는 사람도 드물고 예절을 가르치려는 사람도 드물다. 그래서 예절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제지상주의가 팽대하면서 예절을 배워서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서이다.

왜 예절을 해서는 밥벌이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한국은 예절의 나라' 라는 것에 대한 자공심(自矜心)이 퇴색(退色)하였기 때문이다. 즉 예절나라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다시 말해 한국인 정신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원래의 한국인 정신을 챙겨서 예의지국의 긍지를 다시 누려야 할 것이다.

나. 민족언어는 민족의식이다

일본인은 스스로 '야마토 다마시히(大和魂, 대화혼)' 를 일본인의 공통된 정신으로 내세우고, 유럽인은 '기사도(騎士道)', 미국인은

‘개척정신(開拓精神)’을 그들의 공통된 정신이라 말한다.

그와 같이 어떤 민족이든 민족 공통의 혼(魂), 열, 정신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배달민족(倍達民族)의 겨레열, 민족혼, 한국인 정신은 무엇인지 뚜렷하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

특히 한국은 단일민족국가이며 단일 언어문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정신이 정립되기 쉬운 조건이면서도 그렇지 못한 것은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더러는 ‘선비정신’이 한국인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1910년 5월1일에 실시한 대한 제국(大韓帝國)최후의 국세조사 때 양반, 유생(儒生)이라 해 선비로 자처한 사람은 전체 290만 가구(家口) 중 73,000가구로 2.5%밖에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화랑정신(花郎精神)’이라고 말한다. 화랑오계(五戒)에 보면 임전무퇴(臨戰無退)와 살생유택(殺生有擇)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사도(武士道)라 할 것이고, 직설적(直說的)으로 말하면 신라(新羅)의 통일정신이라 할 것이다. 그 화랑정신에 의해 무너진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일부 계층에 국한하거나 어느 한쪽에 편재하거나 희소성(稀少性)이 있는 것을 국민정신이라 말할 수는 없다. 민족혼이란 그 민족 전체에, 국민정신이라면 그 국민 전체에 보편적,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인 전체에게 보편적,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은 ‘우리’ 의식(意識)이다. ‘우리’를 한자로 쓸 때는 사람(人)이 둘(二)이라고 구성된 인(仁)이라 쓴다. 한국인 정신은 ‘우리(仁)’이다.

민족의 생활철학과 저변의식은 민족 언어 속에 응축되어 있다. 때문에 ‘민족 언어는 민족의식 그 자체’이다. 많은 어휘 속에서도 소유격(所有格)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면 국명(克明)하게 드러난다. 인간의 공통된 성정(性情)은 욕심(慾心)이고, 그것도 유한(有限)한 향유욕(享有慾, 누리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무한한 소유욕(所有慾, 갖고 싶은 욕심)이다.

그 소유욕의 결과인 소유를 표현하는 말이 소유격인데 민족에 따라 소유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쉽다.

한국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은 거개(擧皆)가 ‘나의 것’이라고 일인격(一人格, 나의 집, 나의 부모, 나의 남편·아내, 나의 나라)으로 말하는 데에 반해 우리 한민족은 ‘우리의 것’이라고 복수격(複數格, 우리집, 우리부모, 우리남편·아내, 우리나라)으로 표현한다. 이것이 외국인과 한국인의 완전히 다른 가치기준이다. 우리 한민족은 나와 나라는 개인의식보다 우리라는 공동체(共同體)의식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인은 ‘우리’란 말을 쓰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지를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말과 한국인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不可分離)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정신은 ‘우리’이다.

다. 예절을 실천해야 ‘우리’가 된다

현재 우리 한국인의 시급한 과제를 공동체 의식의 결여(缺如)라고 입을 모으는데 그것이 곧 한국인 정신 ‘우리’ 의식의 실종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인 정신이 ‘우리’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것

을 되찾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그 '우리' 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한자(漢字)로는 무슨 자를 써야 할까? 그것은 너만도 아니고 나 뿐도 아닌 나와 나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사람(人)이 둘(二)이라고 쓴 인(仁)이다. '仁' 을 '어질다' 고 해석하면 옛 문헌들에 '仁' 자가 들어있는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仁' 자를 우리, 함께, 하나로, 더불어, 모아로 해석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되는 길은 평생을 인(仁)을 가르친 공자(孔子)에게서 배우면 될 것이다. 그것이 공자의 말씀과 행적을 모아서 적은 '논어(論語) 의 안연(顏淵)편에 소상히 보인다.

"번지가 仁(우리)에 대하여 여쭙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고 하셨다(樊遲問仁 子曰 愛人)." 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로 더불어 수 없을 것이니 당연한 말이다.

"안연이 仁(우리)에 대하여 여쭙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사욕을 억제하고 예절로 돌아가면 仁(우리)이 될 수 있다' 고 하셨다(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면 남과 더불어 '우리' 로 살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예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안연이 다시 묻는다.

"안연이 여쭙기를 '청컨대 그 요령을 알고자 하나이다' 라 하니 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절이 아니면 보지 말며, 예절이 아니면 듣지 말며, 예절이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절이 아니면 움직이지 말 것이다' 라 하셨다(顏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다시 말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예절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예절을 실천해야 사욕을 억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욕을 억제하려면 예절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성인 맹자(孟子)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맹자' 공손추장(公孫丑章)에 나타나는 사단설(四端說)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남을 측은해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잘 잘못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측은해 하는 마음은 인(仁, 우리)의 시작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시작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禮)의 시작이고, 잘 잘못을 가리는 마음은 지혜(智)의 시작이다(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여기에서 말하는 사단설(四端說) 중에서 '예절의 시작은 사양하는 마음' 이라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욕심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예절을 실천하면 사욕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립된다.

한국인 정신은 '우리(仁) 이다.

'우리(仁) 가 되려면 남을 사랑해야 한다.

남을 사랑하려면 사욕, 이기심(利己心)을 버려야 한다.

이기심을 버리려면 예절을 실천해야 한다.

그 예절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래서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 했다.

미루어 한국이 예절의 나라라는 데에 이의가 없다면 한국인 정신이 '우리(仁) 라는 것에 대해서도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인 정신은 '우리(仁) 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된다.

라. 공자(孔子)는 한국인정신을 가르쳤다

중국의 공자(孔子)가 유교(儒教)를 체계화했고, 공자의 가르침이 인(仁)이라면 유교의 뿌리는 한국인 정신이다. 그것을 유교를 체계화한 공자와 그 뒤를 이은 성인 맹자(孟子)의 말씀으로 증명한다.

'맹자' 진심장(盡心章)에 보면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仁(우리)이란 사람이니 仁과 사람을 합해서 말하면 도리(道)이다(孟子曰 仁也者 人也 合而言之 道也)' 라 했다" 고 했다. 사람은 의

톨이로 혼자 살지 못하고 반드시 대인관계를 엮어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人)을 의존적 존재(依存的 存在)라 하고 인(仁)을 의존적 가치라 한다. 즉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면 ‘우리’는 사회성(社會性)이다. 그것을 도(道), 즉 도리라 한다.

‘맹자’ 이루장(離婁章)에 보면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의 도는 둘이니 인과 불인이 있을 뿐이다’ 고 하셨다 (孟子曰 夫子(孔子)之道 二仁與不仁而已矣).” 고 했다.

공자는 평생을 사람다움의 도리를 가르쳤고, 그것이 유교인데, 그 도리는 ‘우리’와 ‘우리가 아닌 것’이 있을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 인(仁)을 공자가 창작해서 가르쳤다면 인(仁·우리) 사상, 즉 유교는 공자가 창시한 것이 된다. 그런데 ‘논어’ 술이(述而)편에 의하면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것을 말로 가르치고 글로 지어 가르치기는 하였지만 창작하지는 않았다. 옛것을 믿고 좋아하는 것을 그윽히 노팽에게 건주어 본다’ 고 했다 (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공자는 노팽이 그랬듯이 옛것을 말이나 글로 전했을 뿐 창작하지는 않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자가 가르친 ‘우리(仁)’는 공자가 창시한 것이 아니고 예부터 전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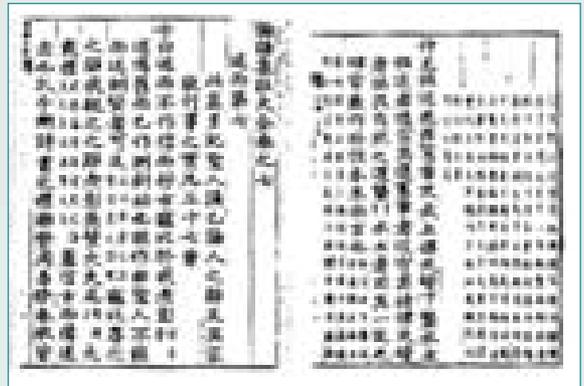
언제부터 ‘우리(仁)’ 사상이 중국에 전해졌을까? 공자의 손자이며 맹자의 스승이고, 중국 5성(五聖)의 하나인 자사(子思)는 그가 쓴 중용(中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중니(仲尼·孔子)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사상을 이어서 말씀 하셨다(仲尼 祖述堯舜).” 공자는 仁을 가르쳤고, 인은 인륜(人倫)이고, 인륜은 순이 가르친 오교·오륜이고, 순은 한국인이 이미 증명되었으므로 공자는 한국인의 가족사상이며 생활 문화인 ‘우리(仁)’를 가르친 것이다.

미루어 공자가 가르친 유교의 뿌리는 한국인 정신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그것들이 중국의 대학자인 공자에 의해서 체계화되

고 문장화해서 한국에 역수입된 것인데, 그 이유는 한자문화(漢字文化)의 동류(東流)와 한자의 상용화(常用化)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2400년 전의 맹자(孟子)부터 800년 전의 주자(朱子) 사이 약 1600년간에 두드러진 유교에 대한 연구가 없고, 현대 중국인의 생활 속에도 유교의 깊이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생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중국의 유교는 책 속에 있고 한국의 유교는 생활 속에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정선문화원

2009 제4회 전통 삼찌기(삼굿) 재현 행사

정선문화원(원장 유경은)은 지난 2009년 8월 1일에서 2일 양일간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삼베마을)에서 제4회 전통 삼찌기(삼굿) 재현 행사를 치렀다. 대마(삼베)는 여름살이 식물로 봄에 역씨를 파종하여 한 여름에 삼을 재배하고, 삼찌기 및 건조 과정을 거쳐 겨울에는 길쌈을 삼고, 봄이면 베를 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4계절을 관통하는 우리 조상들의 옛 삶의 수단이다. 지난 4월 삼밭조성을 시작으로 정선문화원과 호촌리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이번 삼찌기 재현행사는 <화목 쌓기→ 들쌓기→ 접화제례→ 화덕 풀뒹기→ 흙뒹기→ 짐물 주기 3회→ 삼단헤치기→ 냇물에 담그기→ 삼 벗기→ 삼 널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대행사로 초청공연, 삼굿노래자랑, 민속놀이 한마당을 준비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전통 삼찌기 재현 행사는 이러한 일련의 전통 생활문화를 복원, 재현하고 하절기 피서철을 맞아 찾아 온 도시민들에게 전통의 향기를 체험하게 하고 나아가 모두가 즐기는 전통문화를 재조명하고자 개최 되었다.

2009 향토사대중화 사업 향토기자단 2차 답사

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09 향토사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선문화원(원장 유경은) 향토기자단이 2009년 7월18일 2차 답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사업은 “영동에서 영서까지 장(場)길 따라잡기” 라는 사업 명으로 2009년 6월13일 동해시 북평장(場)을 시작으로 정선군 관내 중·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향토기자단이 옛 장(場)길을 답사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을 토대로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2차 답사에서는 동해시와 정선군 사이에 있는 백봉령 옛길을 답사하고 그 지역 어르신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취재활동을 하였다. 3차 답사는 9월중이며, 연말에는 발표회를 거쳐 자료집을 발간 할 예정이다.



횡성문화원

제6회 횡성여성Festival 금상 수상



2009년 7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횡성문화관에서 횡성군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제6회 횡성여성Festival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횡성군 읍·면지역 20개 팀이 참가하여 경연을 펼친

가운데 우리 횡성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장수춤 봉사공연단 역시 참가하여 누구보다 신명나고 흥겨운 우리춤을 선보인 결과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문경문화원

우리 민족시 '시조(時調)'와 함께하는 문경새재 문학기행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문경새재 일원에서 '문경새재테마여행' 세 번째 프로그램인 우리 민족시 '시조'와 함께하는 '나래시조 2009문경새재 여름시인학교'라는 타이틀로 성대하게 열렸다. 신현국 시장과 채대진 문화원장, 고우현 도의원, 탁대학 시의원을 비롯한 전국의 시조시인, 동호인,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신현국 시장은 격려사에서 '나래시조가 문경에서 탄생되어 전국 문학단체로 손색없이 성장한 것에 대해 자부심도 느끼며, 이런 단체가 우리지역을 찾아 문경새재를 명소화 하려고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하고, '문경에 머무르는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남아가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우리 고장 출신으로 시조문학계에 중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농민신문사 권갑하 나래시조협회장의 환영사가 있었고, 채대진 문화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한성 국회의원은 행사 중간에 찾아와 전국적인 문학 행사를 축하해 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문경새재 관광상품인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의 하드웨어에다가 '문화예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가미하여, '문경새재 명소화'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지난 2월 28일에는 '객주'의 작가 '김주영'과 함께하는 문학기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저명한 문화예술인들이 문경새재에 관심을 갖고, 문경새재를 주제로 글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경새재가 명소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 된 것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나래시조'는 1966년 문경에서 작고한 정석주 시인이 창립한 문학단체로, 지금은 시조계통에서 젊은 시인과 지망생들이 참여하는 유일한 우리 민족시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시조계의 중진들이 문경새재를 노래한 작품이 10여 편 답지 하였고, 행사 기간 중에 열리는 백일장에서도 문경새재와 문경찾사발을 주제로 한 명작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경시 관광진흥과 박희일 과장은 '올해 프로그램을 몇 차례 더 진행하여, 여기서 창작된 글과 그림을 연말에 한 권의 책으로 묶을 예정'이라며, '이 책이 문경새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의지를 밝히고,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한말 분연히 일어선 애국지사’ ‘운강 이강년’ 선생 순국 101주기 향사 봉행

의총사보존회(회장 채대진 문경문화원장)는 불멸의 의병장 운강(雲崗) 이강년(李康年) 선생 순국 101주기 향사를 봉행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념 화환을 보내온 가운데, 김지권 안동보훈지청장이 참석하고, 신현국 문경시장이 초헌관, 채대진 문경문화원장이 이헌관, 이정면 운강선생 후손이 종헌관으로 봉행된 이번 향사는 문경지역의 유림, 운강선생 후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운강 선생은 1858년 문경에서 태어나 1880년 22세 약관의 나이에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가 갑신정변이 일어나 나라가 일본에 침탈당하는 것을 보고 낙향, 1896년부터 의병활동으로 구국의 길로 나섰다.

의병활동 처음부터 일본의 앞잡이인 안동관찰사 김석중을 농암장터에서 처단하는 등 내내 기개 높고 용감한 활동을 유지하였고, 속오대작도라는 전술을 개발, 일본군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였다. 이런 선생의 나라사랑 마음과 행동은 국민 가슴 가슴에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 많은 의병이 일어나는 도화선을 만들었다.

만주,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일대를 주 무대로 수많은 전과를 올린 선생은 1908년 7월, 일본군의 총탄에 발목을 맞고 체포되어 3개월 만인 10월에 서대문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면서 13년간의 의병활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선생은 1962년 3월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을 추서 받았다.

성남문화원 제64주년, 광복절 성남 경축식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광복회 성남시지회(지회장/ 이용위)와 8:15 광복절 제64주년을 맞이하여, 일제의 침탈로 잃었던 국권을 되찾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하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100만 시민의 자긍심을 일깨

위 줄 우리 고장 <광복절 성남 경축식>을 지난 8월 15일, 성남시 여성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애국지사 및 광복회원, 주요인사, 각계 대표와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이 거행됐으며, 경축식은 최만순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회장의 '경과보고'와 이용위 광복회 성남시지회회장의 '기념사', 김대진 성남시의회 의장의 '경축사',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의 축시 '억조 창생, 결의역 낭송에 이어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광복절 노래 제창, 시립국악단의 국악관현악 '아리랑' 축하공연과 서상태 애국지사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제7회 학술토론회>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재조명- '성남3·1운동 연구 자료집' 발간 -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대진)가 주최하고,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이 주관하는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재조명 학술토론회>가 8월 15일 (토) 오후 4시, 만세운동의 성지인 울동공원(책 테마파크)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이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의 과제'를 기조발표하고, 한동역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회장이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윤종준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성남출신의

병장들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 서승갑 동서울대 교수가 '신간회 광주지회의 활동과 성격', 강진갑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성남지역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금년은 성남지역에서 일어난 대한독립 만세운동 9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남상목, 윤치장 의병장의 의병항쟁과 돌마면 울리(울동공원 일대)에서 한백봉, 한순희 등과 낙생면에서 남태희 등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이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대한 인물 기록, 재판 기록 등의 역사자료 및 기념사업 추진관련 자료를 수록한 '성남지역 3·1운동 연구 자료집'을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에게 무료 배부했다.

위 줄 우리 고장 <광복절 성남 경축식>을 지난 8월 15일, 성남시 여성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애국지사 및 광복회원, 주요인사, 각계 대표와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이 거행됐으며, 경

동두천문화원

부설예절원 중증장애인 전통 차예절체험 봉사활동 전개

동두천문화원 부설예절원(원장 김임순)에서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전통다도예절 체험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절원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전통차체험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휠체어만 의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전통차를 체험하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하여 접할 수 없다는 장애인협회 관계자의 말을 접한후 임원회의를 거쳐 이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전통차체험봉사활동을 하기로 하여 지난 8월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9월에는 지난 10일 동두천문화원 교양강좌실에서 예산 8만원을 들여 떡과 차를 준비하여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15명에게 전통차예절강의와 마시는 법등을 가리키며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예절원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이러한 봉사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다. 예절원은 김임순원장을 포함한 모두 1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만20세되는 성년에게 전통성년례의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1년 코스의 전통다예절사양성반 과정과 청소년 다문화예절교육과 다문화 이주민들에 대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체험전수 등 우리나라 전통고유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동문화원

'좋은 동네' 가을호 발간 사색의 계절 가을, 문화로 문을 열다

계간지 '좋은 동네' 문화원회원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 마련 강동문화원(원장이원달)이 '좋은 동네' 가을호 발간과 함께 9월 23일(수) 16:30 구민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가을호 집필진 및 문화원 회원, 문화원 임원, 관내 예술인 단체장, 문화

대학 수강생 등을 모시고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작년 겨울호를 창간호로 이번 가을호까지 발간 2주년을 맞이한 '좋은 동네'는 화가, 공예가, 조각가, 사진작가, 시인, 수필가 외 국악인, 동화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작품을 발표해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욕구를 자극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주민들에게는 좋은 작품을 접함으로써 문화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가을호는 전 환경부장관, 현 강동문인회 김중위 명예회장의 명사칼럼, 문화초대석에서는 이해선 시인을 인터뷰했고, 문화원의 자생능력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한 문화원출발2주년 기념토론회에 관한 기사와 유명강사와 알찬 강좌로 꾸며진 제4기 문화대학의 개강소식, 성내동과 고인들에 관한 향토 문화, 문화거리와 광문고등학교탐방을 다룬 우리동네 자랑, 색소폰패밀리 외 풍성한 문화행사소식이 담겨있다.

제4기문화대학 개강

강동문화원에서 제4기 문화대학을 개강했다.

이번으로 네 번째인 문화대학은 구민들에게 예술을 감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높아져가는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예술작품에 대한 안목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아트센터" 건립에 맞춰 '좋은 동네' 예술 강좌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예술교양을 높이고자한다.

개강식은 9월 16일(수) 13:30부터 구민회관 1층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김홍신 소설가의 '인생사용설명서' 라

는 강의명으로 약 2시간동안 진행됐다. 그만의 유쾌하고 진중한 강의를 해줌으로써 수강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문화대학 4기는《인생사용설명서》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김홍신 소설가의 첫 시간 특강과 유안진 시인의 ‘시 속의 삶, 삶 속의 시’, 인간문화재 신영희 명창의 ‘우리소리를 찾아서’, 김갑수 문화평론가의 ‘세계 음악의 여행-예술체험의 의미’ 등 문화강좌뿐만 아니라 ‘무대예술 이해하기’의 경희대 이영란 교수의 예술강의가 있으며, 경희대 동서신의 학 병원 비노기와 이형래 교수의 ‘건강한 부부생활’ 등과 같은 건강 강좌까지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명지대 이태호 교수의 우리 옛 그림인 풍속화에 대한 강의, 국립현대미술관 기혜경 학예연구사의 서양미술사 강의, 이원달 화백의 ‘왜 그림을 사랑하게 되었는가’라는 주제의 미술특강도 있어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미술사 강좌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강좌는 9월 16일부터 11월 25일 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에 13강좌를 운영하며 문화대학 기간 중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 답사와 미술관 견학도 한 차례 실시한다.

강좌 중 11월 18일(수)에는 신영희 명창의 “우리 소리를 찾아서”가 공개강좌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동문화대학을 수료한 수강생은 ‘문화원 홍보대사’로 강동구의 지역 문화·예술을 위하여 활동하게 된다.

포천문화원

용산전쟁기념관 답사 실시

-6.25 전쟁의 교훈을 새기며-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9월 9일 포천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수강생 및 임·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 전쟁기념관 답사를 실시했다.

전쟁사 종합박물관인 용산전쟁기념관을 답사하여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6.25전쟁의 교훈을 새기고, 나라와

거래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군포설화 단편영화 <감투봉 명당싸움>을 보고

군포문화원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설화 찾기에 힘써 왔다고 한다. 2004년 108편 넘게 발굴하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것 중 하나인 <감투봉 명당싸움>을 단편영화로 재탄생시켰다. 출연자도 모두 동네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것도 군포문화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노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화에는 선조들의 구수한 삶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앞만 바라보며 내달리는 현대인의 척박한 가슴 속에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는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우리사회에서 자칫 짐으로만 여겨질 수밖에 없는 동네 어르신들이 뭉쳐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게 애항심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작업을 선도적으로 시도한 것이다. 영상분야인 영화는 현대인들에게 무한한 영향력을 끼치는 매력적인 매체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실제로 제작에 뛰어들기는 어려운 고난이도의 작업이다. 그러기에 이번 작업은 지역에 있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추어, 그것도 노인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노인들을 모아놓고 3~4개월 훈련해서 영화를 찍는 작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출연진 이상의 스태프들을 지역인사로 꾸려서 진행시킨 것 또한 놀라운 일이다. 개인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공동체 정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군포에는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영화 내용은 보통 설화가 그렇듯이 평이한 편

으로 누구나 쉽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했고, 시나리오도 청소년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익히 쓰고 있는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잘 구성하였다고 생각한다. 단지 아쉬운 점은 일부 출연진이 텍스트에 충실하려다 보니 일상대화에서는 보통 생각하는 “-의”를 힘주어 말하여 아마추어 냄새를 편하게 풍겨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TV 드라마나 코미디 프로에서 시청자의 흥미를 끌려고 자주 써먹는 손찌검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청소년 교육자료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욕의 티는 아닐까? 그리고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온 “이조시대”란 용어가 등장하는 것 역시 비교육적인 언어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투봉 명당싸움>은 영화로서의 예술성보다는 현대의 새로운 예술 흐름인 ‘생활문화예술’, ‘커뮤니티 아트’ 측면에서 대단히 훌륭한 작업이다.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결합하여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작업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영화를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문화예술의 향유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있는 인간들의 터전위에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장 서정문)

지역문화의 산실 수영문화원 개원

수영지역의 문화를 꽃피울 수영문화원(원장 전광수)이 지난 7월 10일 박현욱 수영구청장, 시·구 의원, 문화예술회 관계자와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의 문화원 원장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원하였다.

2008년 초부터 수영구청에서 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 문화원 설립 계획을 세우고, 문화원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문화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진행하였다.

하지만 세계적 경제위기 등으로 문화원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확보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당초 목표했던 2009년 1월에 개원을 하지 못하면서 자칫 문화원 설립이 중단될 뻔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원 설립이 늦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한 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 문화원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고, 그 결과 지난 6월 11일 문화원 창립추진위원, 문화예술단체 회원, 단체장, 일반회원등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문화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원장으로 전광수 이진중합건설 회장을 선임하고 약 한달만에 개원에 이르게 되었다.

충남문화예술지도 발간사업을 하며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행운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어느덧「충남문화예술지도 발간사업」을 위해 충남문화예술포럼에서 청년 인턴으로 일한지도 두어 달이 되어간다. 처음 접해 본 일인 지라 일에 대한 생소함과 어색함에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면서 업무파악과 일처리를 통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 하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학이라는 동지 안에서 막 벗어나 취업할 길이 없이 어려움과 막막함에 사로잡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도 못한 청년실업자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있던 나로서는 사회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기회를 준「충남문화예술지도 발간사업」이 너무도 큰 행운이었다. 어쩌면 취업이라는 명분 아래 아직도 홀로 방황하며 어려움에 빠져 낙담하고 나태해졌을지 모르 나의 모습들을 그려보면 너무도 암담하게 느껴지기에 지금의 생활과 일들이 나를 만족스럽게 하고, 점점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충남문화예술지도」를 만들기 위해 자료 조사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지역문화와 예술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었던 나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충남문화예술포럼의 박응진 회장님과 이준창 사무국장님의 격려와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문화원의 직원들 도움으로 어렵게만 느껴졌던 일들을 하나, 하나씩 해나가면서 일의 재미와 자신감을 갖게 됨은 물론, 내가 몰랐던 지역문화와 예술에 대하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된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아울러「충남문화예술지도」를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줄지는 지역 주민들과 넓게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내가 배우고 경험한 일들이 너무나 소중한 고 값진 것이란 걸 느낌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업무와 일처리를 통하여 앞으로도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밑바탕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번 일을 끝까지 성공적인 마무리를 거두어 내가 배운 업무지식과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작은나마하게나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과 목표를 갖게 되었다.

비록 인턴으로 배우고, 시작한 일이지만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동시에 보람과 긍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일을 하며 열심히 하루를 보낸다. (충남문화예술포럼 권희도)



경기민속예술제

민속예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민속유산을 보존하고 육성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는 경기민속예술제가 올해로 17회를 맞았다. 지난 9월 4일~5일 2일간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민속놀이, 민속극, 민속무용, 민요 등의 내용으로 31개 시·군 문화원(시·군별 1개팀 1종목 기준)이 참여하였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 주최하고 용인문화원에서 주관, 경기도, 용인시의 후원을 받아 출연인원이 이천여 명에 이르는 경기도의 대표적 축제로 발돋움했다. 각종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남녀노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속 어울마당을 운영함으로써 세대간 소통과 민속문화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와 시상을 하며 격려했다.

'시'로 두드리는 가을, 그곳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제7회 전국 창작시 공모'

지난 9월 11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1개월간 창작시 공모를 한다. 한시, 시조를 포함한 시부문을 공모하며 1인 3편 이내로 제한한다. 발표는 2009년 10월 26일(목)에 있다. 문단 등단 시인 및 활동 중인 기성시인 제외한 시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창작시여야 한다. 인적 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필히 기입하고 접수는 해당 지역 문화원에서 하면 된다.

참조 및 문의 02)704-2311, www.kccf.or.kr

8~9월 주요행사

지난 8월 21일 진주문화원장 이취임식에서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김진수 원장님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봉사단체 참여와 함께 진주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하신 분이로서 훌륭한 경륜을 바탕으로 45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진주문화원을 한층 더 발전시키리라 기대' 한다고 밝혔다. 9월 1일 금천문화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문화단체간 경쟁이 심한 오늘날 지역마다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향수권을 높여야 할 책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우리문화원에 부여되었음을 자각하시어 문화원 발전에 매진' 하기를 당부했다. 이어 9월 2일에는 영월문화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고, 4일에서 5일 이틀간 열린 경기민속예술제에 참석하여 축사와 시상을 통해 격려했다.

9월 10일~11일 열린 제 1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는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이 아리랑상 시상을 하였으며 이어 11일부터 12일에 국립국악원 일원에서 열린 제 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석했다. 18일에 진도문화원에서는 원사 준공식에서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격려사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문화원사를 확보하신 김경호 진도문화원장님의 그 동안의 노고와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 한다고 전했다.



금천문화원장 박종우 씨

지난 2009년 8월 14일 임시총회에서 추대로 박종우(朴鍾宇, 65세) 씨가 제 5대 금천문화원장에 당선됐다. 2009년 8월 31일 오후 4시, 금천문화원 공연장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영등포문화원장, 관내 각 단체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 원장은 취임사에서 '문화란 삶이요, 역사입니다. 역사는 살아 있는 것' 이라고 밝히며 빛나는 전통과 찬란한 문화유산은 소중한 기둥은 토양 위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니만큼 문화 사랑의 험난한 길에 주저 없이 뛰어 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시흥야간학교장, 초대 구의원 (주간) 범정평문사 편집부차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금천구 향토사 연구소장과 시인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박 원장은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을 받기도 하였다.



수영문화원장 전광수 씨

지난 7월 10일 개원한 수영문화원이 그에 앞서 수영문화원장에 전광수(田光洙, 63세)씨를 추대했다. 지난 6월 11일 7시에 열린 창립총회에서 전광수 원장은 추대를 통하여 수영문화원 제 1대 원장에 선임되었다. 취임식은 7월 10일 수영문화원에서 열렸으며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하여 박현욱 구청장, 김수옥 구의장 및 구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전 원장은 취임사에서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히며 각오를 다졌다. 전 원장은 부산연산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장, 수영구 수영포럼 대표 등을 역임하며 현재 (주)이진종합건설 대표이사로 재임 중에 있다.



영월문화원장 임태성 씨

지난 8월 13일 10시 제60차 임시총회에서 임태성(嚴泰成, 74세) 씨가 추대로 제 6대 영월문화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취임식은 지난 9월 2일 11시에 영월군여성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하여, 한장수 강원도 교육감, 이대근 강원도지회장, 도내 16개 시군문화원장, 박선규 영월군수, 장경재 영월군의회회장, 김영복 영월교육장, 이의신 영월경찰서장이 참석했다. 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단종대령과 김삿갓을 중심으로 한 향토사연구소를 활성화시키고, 향토문화 디지털 전자대전을 구축, 금석문화의 보존방안을 모색, 영월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고 문학과 예술의 창작정신이 살아있는 문화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임 원장은 공기, 불래초등학교 교장, 영월문화원 이사 및 감사를 역임하고 단종문화제 전문위원 및 감사, 바르게살기운동 영월군협의회회장을 맡은 바 있다.



진주문화원장 김진수 씨

지난 8월 7월 16일 임시총회에서 투표인수 702명 중 376표로 4명의 입후보자 중 김진수(金鎭洙, 67세) 씨가 진주문화원장에 당선됐다.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 진주시장, 경상남도의원, 시의원, 진주교육장, 언론통계관, 경상남도지회장, 경남문화원장, 하동군수 등 많은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백성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고, 나라 없는 백성이 있을 수 없듯이 회원 없는 문화원이 존재할 수 없고 문화원 없는 회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회원 모두를 중시하면서 많은 회원과 함께 뜻을 같이 할 것' 이라고 말하며 진주문화원의 새로운 체제부터 확립하여 분위기를 쇄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연구과정 수료한 김 원장은 현재 주식회사 청록건설 회장과 청록산악회 전국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Microshield[®]

Antimicrobial Hand Gel

마이크로실드[®] 안타-마이크로비알 핸드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물이없는 곳에서 세균으로부터 당신의 손을
지속적으로 축축하게 지켜드립니다.

특히 성분함량의 SAMA 기술로

- ✓ 99.99%의 광범위하고 빠른 살균력
- ✓ 1시간까지 지속적인 항균력
- ✓ 반복사용하여도 뛰어난 피부 보습력

으로 종합병원에서도 사용하는
이상적인 항균 손 소독제입니다.



Johnson-Johnson
MEDICAL

미국의약품회사의 등록상표이며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